

상담교육인증체제구축 심포지움

- 상담교육인증의 방향과 과제 -

- ◆ 일 시 : 2015년 4월 4일
 - ◆ 시 간 : 14:00~17:00
 - ◆ 장 소 : 전주대학교 온누리홀
-

- ▣ 주 관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한국상담학회
- ▣ 주 최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종합연구소·전주대학교 상담교육연구소
- ▣ 후 원 : 한국연구재단·전북상담학회·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상담교육인증체제구축 심포지움

- 상담교육인증의 방향과 과제 -

- ◆ 일 시 : 2015년 4월 4일
 - ◆ 시 간 : 14:00~17:00
 - ◆ 장 소 : 전주대학교 온누리홀
-

- ▣ 주 관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한국상담학회
- ▣ 주 최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종합연구소·전주대학교 상담교육연구소
- ▣ 후 원 : 한국연구재단·전북상담학회·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모시는 글

만물이 새롭게 시작되는 봄입니다. 파릇파릇한 새싹과 향기로운 꽃들, 따스한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하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봄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마냥 신선함을 즐거워하며 살 수만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대표되는 총체적 부실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노동, 국방 등 국민들의 생활 전 영역에서 고통과 아픔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 쉽게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뿌리 깊은 원인이 있으며 이 부실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집단의 기득권 지키기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과 행동, 관계를 다루는 상담은 이런 사회적, 국가적 어려움의 대처와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상담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화해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사회적 모순을 만들어 내거나 개선할 수 있는 지도적 위치에 현재 있거나 앞으로 있을 사람들의 정서와 사고, 행동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상담의 전문성 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이 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한 “한국의 상담자교육 인증체제 개발 연구”의 결과물을 발표하며, 상담학과의 입장, 상담학계의 입장, 상담현장의 입장, 교육인증 관련 행정의 입장에서의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에 임해주시는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발표와 토론을 통해 아직 먼 길이지만 상담교육인증체제로 가는 여정이 잘 마련되어 상담의 전문성 강화가 상담계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정부부처나 국회 등에서도 널리 인정되며 상담전문가의 사회적 위상이 정립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행사에 함께 해주시는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한국상담학회,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상담교육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전북상담학회,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상담 전문가, 상담 수련생, 상담전공 학생들이 참여하여 풍성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장 김 인 규

- 일 정 -

간	내 용	발 표 자
13:30~14:00	등록	
14:00	개회·국민의례·내빈소개	사회 : 이호준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14:00	인사말	김계현 서울대학교 교수, 전 한국상담학회장
14:05~14:30	주제 발표 상담교육인증체제 구축방안	김인규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14:30~15:00	발표 1 상담학과의 입장	유현실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장은진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김상민 김천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이호준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좌장)
15:00~15:30	발표 2 상담학계의 입장	반신환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장 김택호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검정위원장 김지현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동민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좌장)
15:30~15:45	휴식	
15:45~16:05	발표 3 상담기관의 입장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Wee 특임센터장 소수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연수부장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좌장)
16:05~16:45	발표 4 교육행정기관의 입장	김계현 서울대학교 교수 서민원 한국대학평가원장 황진태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 사무국장 김장희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좌장)
16:45~17:00	종합논의	
17:00	폐회	

- 목 차 -

: 상담교육인증체제 구축방안 : 김인규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5
발표1. 상담학과의 입장 I : 유현실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53
상담학과의 입장II : 장은진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55
상담학과의 입장III : 김상민 김천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58
발표2. 상담학계의 입장 I : 반신환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장.....	63
상담학계의 입장II : 김택호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검정위원장.....	65
상담학계의 입장III : 김지현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67
발표3. 상담기관의 입장 I :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Wee 특임센터장.....	72
상담기관의 입장II : 소수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연수부장.....	75
상담기관의 입장III :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78
발표4. 교육행정기관의 입장 I : 김계현 서울대학교 교수.....	86
교육행정기관의 입장II : 서민원 한국대학평가원장.....	88
교육행정기관의 입장III : 황진태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 사무국장.....	91
전주대학교 안내.....	94
한국상담학회 조직안내.....	95
온라인 상담·교육 시스템 안내.....	97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안내.....	99

상담교육인증체제 구축방안

김인규(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I. 상담교육인증의 필요성

현재 전문상담은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서비스 분야로 부상하여 학교폭력,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주목을 받는 대상들 뿐만 아니라 군, 기업, 노인, 위기경험자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 부처 중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국방부, 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전문상담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나 상담이 우리 생활 전 분야에 관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상담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적인 관심과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전문 상담자 양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전문상담자 양성은 주로 일반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상담직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학부과정에 상담관련 학과가 설치, 운영되어 상담의 기반마련과 대국민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고, 이에 2000년대를 전후하여 학부에 상담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부, 일반대학원, 상담대학원, 교육대학원 등에서 운영되는 상담자교육과정은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그 전문성과 체계성, 통일성이 부족한 현실이다(김인규, 2008b; 박경애, 방기연, 2007; 이숙영, 김창대, 2002; 최해림, 김영혜, 2006). 즉 다양한 학위과정간의 차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동일 과정도 학교에 따라 그 내용과 수준이 동일하지 않아 일정한 상담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의 지식과 능력의 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와 같은 상담자교육과정의 문제는 상담자격의 혼란과 맞물려 현재의 상담 활성화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급증, 다양한 상담서비스 개설, 다양한 상담교육 및 상담자격 발급기관 설립은 상담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상담자 양성과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오히려 상담의 발전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도 있다(이상민 등, 2007; 김인규, 2009b, 2009c, 2011). 이를 위해 상담법제화(김인규, 2009), 상담관련 국가표준 마련(강진령 등, 2009), 상담교육과정 체계화(이숙영, 김창대, 2002), 체계적인 상담체제 구축(최상근 등, 2011)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질적으로 수준 높은 상담자의 양성은 전문상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전문상담의 위상을 확보하며, 상담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교육기관 스스로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상담교육기관과 그 내용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인증체제 구축은 관련 학교, 학회, 현장 전문가 등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

하여 광범위한 실무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국내에서는 의학, 간호학, 공학, 경영학 등의 학문영역에서 대표적으로 고등교육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의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질적으로 수준 높은 상담자를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거쳐 상담자교육 학위과정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한국의 상담자교육 인증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로서 학부 상담교육 인증의 기준과 절차를 구안하는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상담교육인증 연구 과정

본 연구는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연구’로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수행되었다. 각 년차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담자교육인증체제 기초자료 연구 (1년차 연구 : 2012. 5 ~ 2013. 4)

1) 상담자교육 인증체제에 관한 인식 조사

상담자교육 인증체제의 필요성, 효과, 목적, 내용, 업무분담 등에 대하여 상담교육전문가, 상담실무자, 상담제도 관련자, 일반인 등의 인식을 파악

2) 기존의 교육인증체제 개발에 대한 연구

미국의 상담교육인증체제인 CACREP와 심리교육인증체제인 CoA, 한국의 공학교육인증체제, 한국의 경영교육인증체제 등의 개발과정과 인증절차 등에 대한 분석

3) 인증체제구축 로드맵 개발

인식조사연구와 기존 교육인증체제 개발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상담자교육 인증체제 구축을 위해서 향후 필요한 과제를 연차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개발

2. 상담자교육인증 기준 개발 (2년차 연구 : 2013. 5 ~ 2014. 4)

1) 인증모델 및 영역 설정

상담자교육 인증체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모델, 인증대상, 인증영역 등을 탐색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할 모델, 대상 및 영역을 설정

2) 교육인증 영역별 인증기준 개발

교육환경, 전문적 정체성, 전문적 실무능력 등(CACREP 기준 준용시)과 같이 설정될 본 연구의 교육인증 영역별로 구체적 인증기준을 개발

3) 상담전공 영역별 인증기준 개발

청소년상담, 정신건강상담 영역 전문가 수련 기준 개발

3. 상담자교육인증 절차 개발 (3년차 연구 : 2014. 5 ~ 2015. 4)

1) 제도적 필요사항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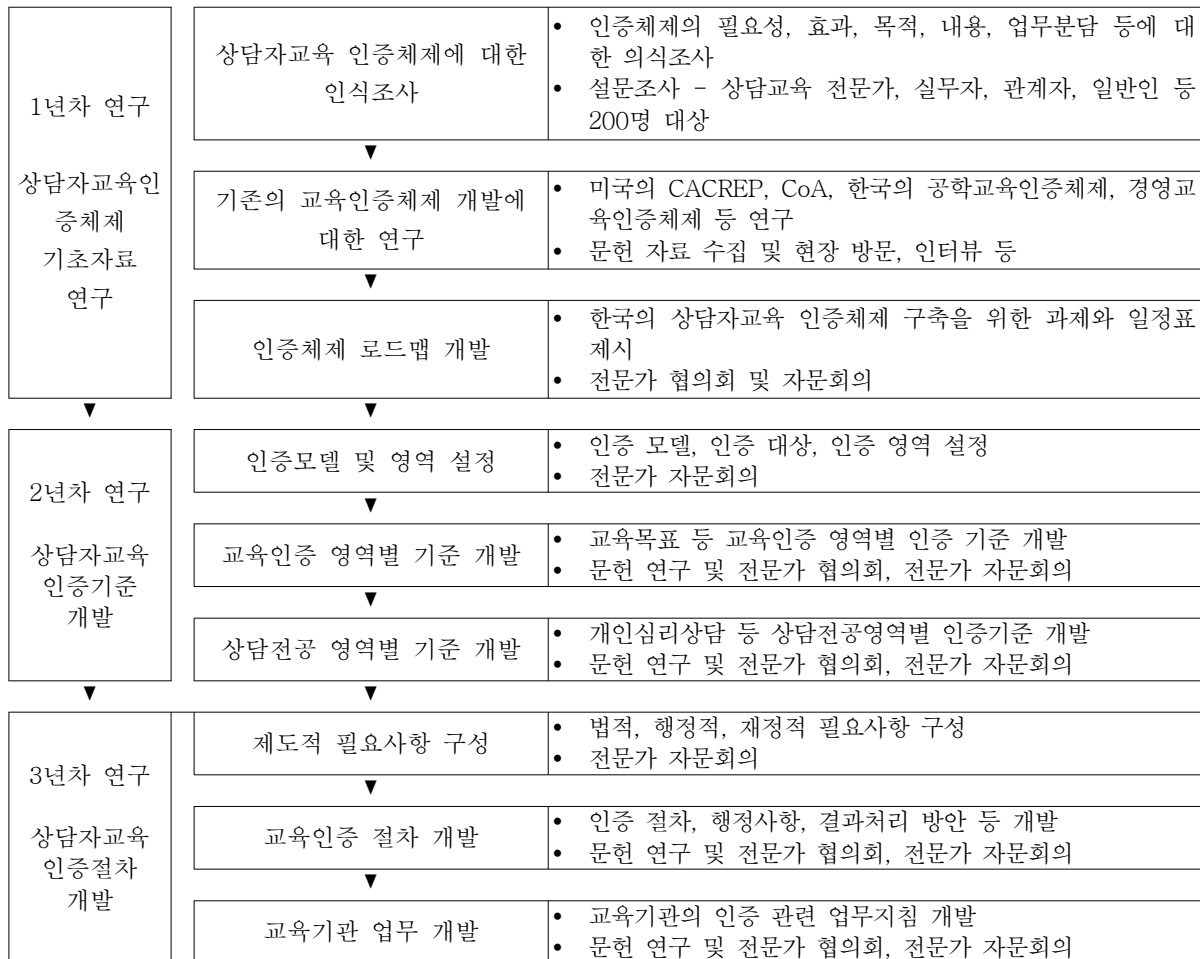
상담자교육인증절차에 따른 법적, 행정적, 재정적 필요사항을 탐색하여 본 연구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구성영역을 설정

2) 교육인증 절차 개발

인증절차, 행정사항, 결과처리 방안 개발

3) 교육기관 업무 개발

교육기관의 인증 관련 업무지침 개발



[그림1] 연차별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Ⅲ. 상담교육인증 기준(안)

상담교육 인증평가의 목적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상담 현장에서 요구하는 상담자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교육 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상담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1. 학과운영

1.1 비전 목표

학과는 대학 및 지역사회의 특성, 상담 환경 변화, 국내외 상담직에서 요구하는 상담자 핵심역량 등을 반영하여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다.

1.2 운영체제

1.2.1 학과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술하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1.2.2 학과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교육기관의 학사학위 수여과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1.2.3 학과는 해당 대학 및 학과의 교육목표에 적합하도록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 등의 졸업요건을 제시한다.

2. 교육과정

2.1 학습 목표

상담교육 프로그램은 졸업 시 학습 성과로서 다음의 역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발달과 문화 이해 능력
- 상담이론 및 상담문제 이해 능력
- 상담개입 능력
- 심리검사 이해, 실시, 해석 능력
- 상담자 윤리이해 및 적용 능력
- 행정실무 능력
- 자기성장 및 소진대처 능력

2.2 교과목 운영

- ① 인간발달 :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수준 이해를 돕는 교과영역
- ② 조력관계 : 상담이론 및 기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과영역
- ③ 검사 및 평가 : 개인과 집단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돕는 교과영역

- ④ 연구와 통계 : 상담 연구와 관련한 지식과 실무훈련을 제공하는 교과영역
- ⑤ 실습 : 상담 기술개발을 위한 상담 실습을 경험하는 교과영역
- ⑥ 기타 : 위 5개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

2.3 실습 운영

2.3.1 실습과목과 상담현장체험의 그룹 내에서의 슈퍼비전 인원은 최대 20명의 학생을 넘지 않는다.

2.3.2 학생은 재학기간 중 2학기 이상의 실습과 현장체험을 한다.

3. 학생

3.1 학생선발

학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 ① 인성 특성
- ② 대학과정 수학능력
- ③ 상담관련 진로 목표

3.2 학생지도

3.2.1. 학과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개발을 위해 지도교수제도 등 학생지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학습, 생활, 진로 등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상담과 지도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관리·활용한다.

3.2.2. 학과는 학생의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 제공 등과 같은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예산을 운용·집행한 실적이 있다.

3.3 학생지원

학과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장학제도와 같은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3.4 학과 적응 및 직업 적응 프로그램

학과는 학생의 학과 적응과 상담직무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과 적응 프로그램 및 재학생 대상 직업 적응 프로그램을 교과목에 정기적으로 실시·운영하고 있다.

4. 교수

4.1 교수확보

4.1.1 전체 학생에 대한 전임 교수의 비율이 40:1을 넘지 않는다.

4.1.2 학과에서는 다양한 교수진의 모집, 채용,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한다.

4.1.3 학과는 학과의 임무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이 있는 교수진으로서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는 학과 소속 교수를 확보 한다.

- ① 상담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 ② 담당 영역과 관련한 준비와 경험
- ③ 상담분야 전문학회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전문가 자격을 통한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 ④ 상담전문가 활동 및 상담분야 전문 학회 활동에 참여

4.1.4 학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비전임 교수(예: 객원교수, 산학협력교수, 임상교수 등)를 채용하여 프로그램의 임무, 목적과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① 상담 및 연관분야 박사수료 소지자
- ② 담당 교육 분야 관련 준비와 경험
- ③ 상담분야 전문 학회 회원, 적합한 자격을 통한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4.2 교수업적

4.2.1 전임교수의 수업시수가 전체 교과목 수업시수의 60% 이상 수준이다.

4.2.2 교수진은 상담분야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4.3 교수개발지원

교육기관은 교수들이 교육자와 연구자로서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체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수개발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5. 교육환경

5.1 행정체계

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5.2 재정지원

교육기관은 이 프로그램의 학습 환경에 대한 연속성, 질,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한다.

5.3 교육시설

교육기관은 대학 내, 외에 교수실,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을 확보하고 운영하며 모델링, 상담시연, 슈퍼비전, 훈련에 도움이 되는 실습실 등의 상담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5.4 행정 및 교육보조인력

학과 행정 업무를 위한 학과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보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6. 교육성과

6.1 교육성과평가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임무, 목표, 학생의 학습 성과 등의 측정과 결과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계획은 다음을 포함 한다.

- ① 프로그램,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자의 특성에 대한 검토
- ② 전문가 정체성, 전문적 지식 및 실천 등에서의 학습과 수행에 대한 평가
- ③ 프로그램의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결과를 문서화한 공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열람 가능한 형태로 제시

6.2 졸업생 진로

대학은 학부생의 졸업 후 진로를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상의 상담교육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평가항목화 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개요는 표 1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1. 상담교육인증 영역별 평가기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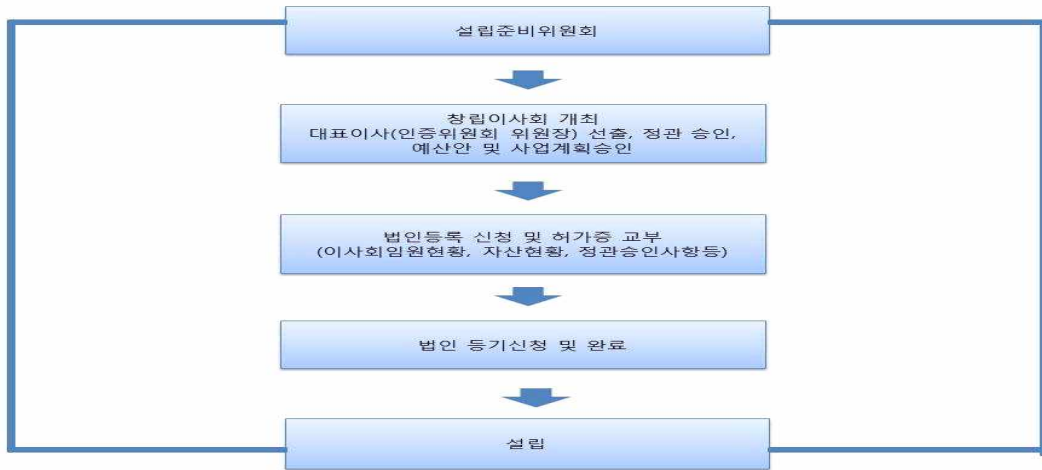
영역	부문	내용요약
I. 학과운영 (16)	1.1 비전 목표 (4)	1.1.1 상담 비전 목표 (4)
	1.2 운영체계 (12)	1.2.1 교육과정 공지 (4)
		1.2.2 교육과정 편성 (4)
		1.2.3 졸업 기준과 절차 (4)
II. 교육과정 (16)	2.1 학습 목표 (4)	2.1.1 학습 성과 (4)
	2.2 교과목 운영 (4)	2.2.1 교육과정 운영 (4)
	2.3 실습 운영 (8)	2.3.1 실습 인원 (4)
		2.3.2 실습 시간 (4)
III. 학생 (20)	3.1 학생선발 (4)	3.1.1 학생선발방법 (4)
	3.2 학생지도 (8)	3.2.1 학생지도 체계 (4)
		3.2.2 학생지도 지원시스템 운영 (4)
	3.3 학생지원 (4)	3.3.1 학생활동 지원 (4)
3.4 학과 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 (4)	3.4.1 학생들의 학과 적응 및 직업적응 (4)	
IV. 교수 (28)	4.1 교수확보 (16)	4.1.1 전임교원확보 (4)
		4.1.2 교수 채용 (4)
		4.1.3 교수 역량 (4)
		4.1.4 비전임교원 확보 (4)
	4.2 교수업적 (8)	4.2.1 전임교수 수업시수 (4)
		4.2.2 교수 수업 현황 (4)
	4.3 교수개발지원 (4)	4.3.1 교수개발지원 (4)
V. 교육환경 (16)	5.1 행정체계 (4)	5.1.1 대학의 행정지원체계 (4)
	5.2 재정지원 (4)	5.2.1 교육관련 재정지원 (4)
	5.3 교육시설 (4)	5.3.1 교육시설확보 (4)
	5.4 행정 및 교육보조인력 (4)	5.4.1 행정 및 교육보조인력 확보 (4)
VI. 교육성과 (8)	6.1 교육성과평가 (4)	6.1.1 프로그램 학습 성과 평가 (4)
	6.2 졸업생 진로 (4)	6.2.1 졸업생 지원체계 구축 (4)

IV. 상담교육인증 체제(안)

1. 상담교육인증체제 구축 로드맵

상담교육인증기구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상담교육인증기구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선출한다. 그 후, 이사회(사단법인의 경우는 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과 초대원장을 선출한다. 이어서 실질적인 인증기구운영과 평가를 실시할 운영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단법인등록을 신청하거나 재단법인의 승인을 받는다.



[그림2] 상담교육인증기구 설립절차

설립준비위원회 및 인증기구에는 상담학과, 상담학계, 상담현장, 인증행정분야 등 4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상담학과 영역은 현재 상담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부의 학과들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파악한 학부 수준의 상담학과는 총 50개로서 4년제 41개, 2-3년제 9개이며, 매년 여러 대학에서 상담학과들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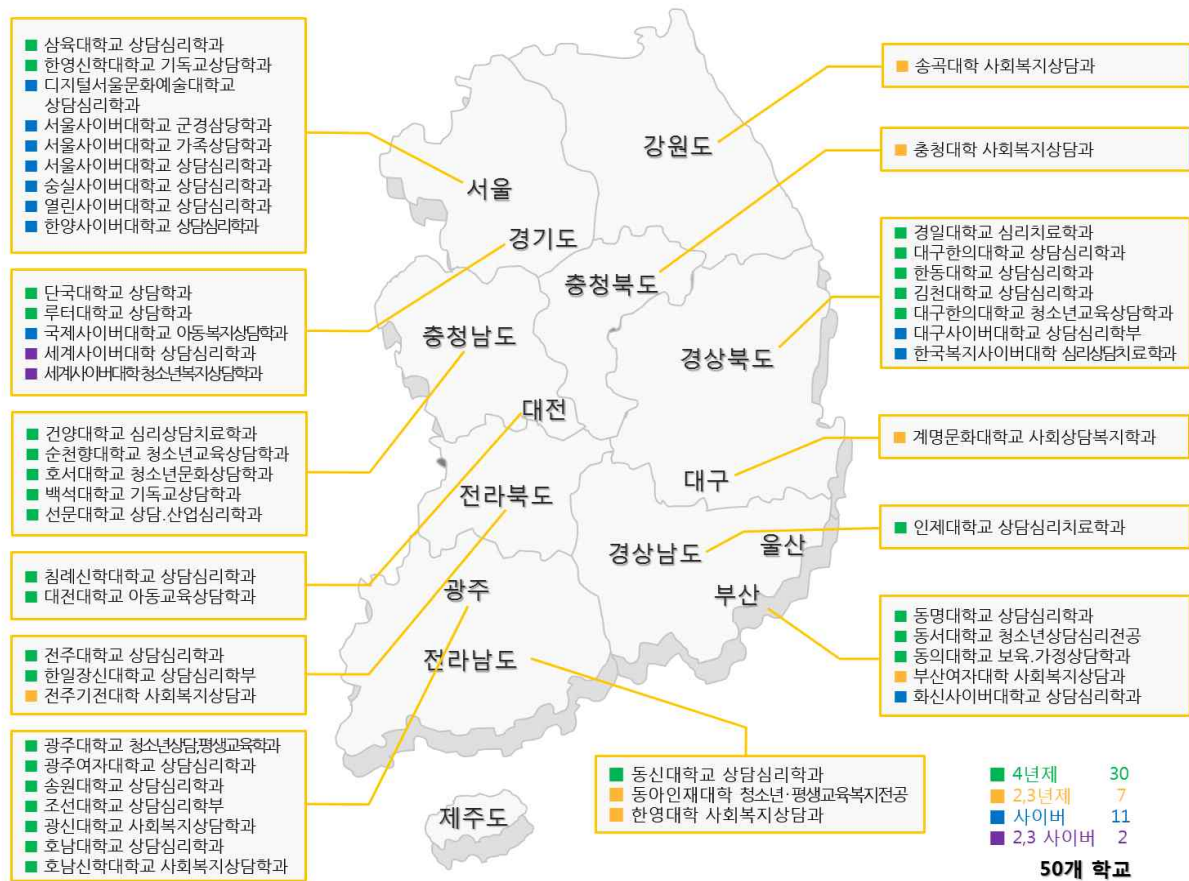
상담학계 영역은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등 상담관련 전문학회와 대학원 수준에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상담관련 자격 발급, 학부에 이은 대학원에서의 상담교육을 관장하고 있어 학부 상담학과 교육인증에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상담현장 영역은 학부 졸업생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상담관련 산업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청소년상담, 학교상담, 아동상담 등 상담 직접 관련 분야와 기업체 인사 파트, 대인 서비스 관련 사업, 교육관련 사업 등 상담 간접 관련 분야가 포함된다. 이들은 상담학과 졸업생을 직접 활용하면서 대학에서의 상담교육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이 인증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증행정 영역은 고등교육인증에 관련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교육부 대학정책실, 고등교육평가원,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상담관련 자격을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상담교육인증의 국가 제도화를 관장하고, 국가자격과의 관련을 담당하므로 이 인증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3] 전국대학상담학과 현황도



2. 상담교육인증기구(안)

상담교육인증기구는 사단법인 형태 또는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수 있는데, 공학과 경영학의 경우는 사단법인으로, 의학과 간호학은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를 주축으로 이사회와 감사로 구성되는데 감사는 필수요소는 아니다.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 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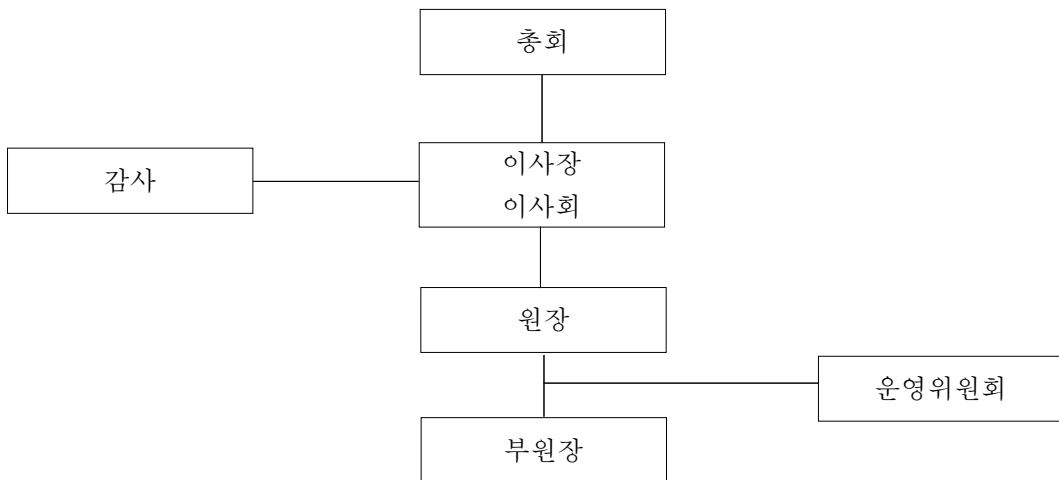
1. 정관 개정
2. 원장의 선임 인준과 이사 및 감사의 선임
3. 사업 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그 기능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심회 의결한다.

1. 원장의 선임
2. 회원의 입회 및 퇴회
3. 규정, 규칙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
4. 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증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토의될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관한 사항
10. 상기 사항에 관한 업무는 필요 시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구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그림4] 사단법인의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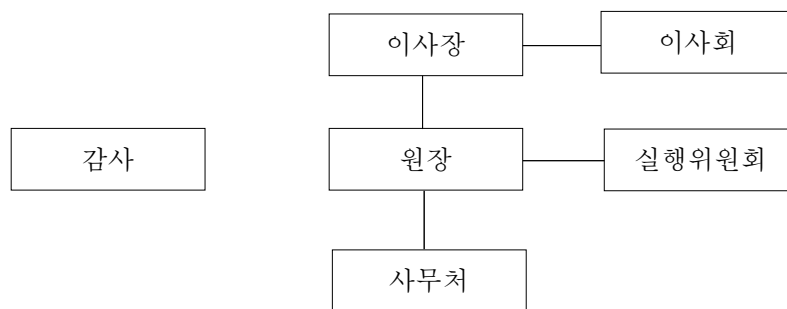
재단법인이 사단법인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총회가 없으며 대표기관으로써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이 된다는 점이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1.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원장의 선출과 해임
5. 사업 계획 승인
6. 기타 운영에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실행위원회의 구성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두고, 실행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실행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선출된 실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4. 자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서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국은 원장이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용, 승진,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그림5] 재단법인의 조직구성

3. 상담교육인증절차(안)

상담교육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가. 평가매뉴얼 개발 및 보급

- 한국상담교육인증평가 운영을 위해 인증 기준을 개발하여 평가인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 한국상담교육인증평가원은 대학의 자체 평가를 위한 평가내용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 인증기준은 한국상담교육인증평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사회가 승인하여 확정한다.

나. 대학의 인증신청

- 각 대학의 상담관련학과는 학과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환경, 교육성과 총 6개의 인증평가영역이 완성되면 신청한다.

다. 대학의 자체 평가

- 상담교육인증평가원은 인증평가를 신청한 상담관련학과가 자체평가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 등을 통해 자체평가를 지원한다.

라. 서면평가 및 현장 방문평가

- 상담관련학과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보고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상담교육기관을 상담교육인증평가단이 현장 방문하여 서면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마. 평가단의 평가결과 분석 및 1차 발표 통보

- 인증평가위원회는 운영세칙에 맞게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윤리지침을 준수하고 평가인증을 실행한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바. 이의신청 및 재평가

- 인증기간 중에 인증이 철회된 프로그램은 판결정과에 이의 신청을 한다.
- 재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이사회에 재심 결과를 보고한다.

사. 평가결과 최종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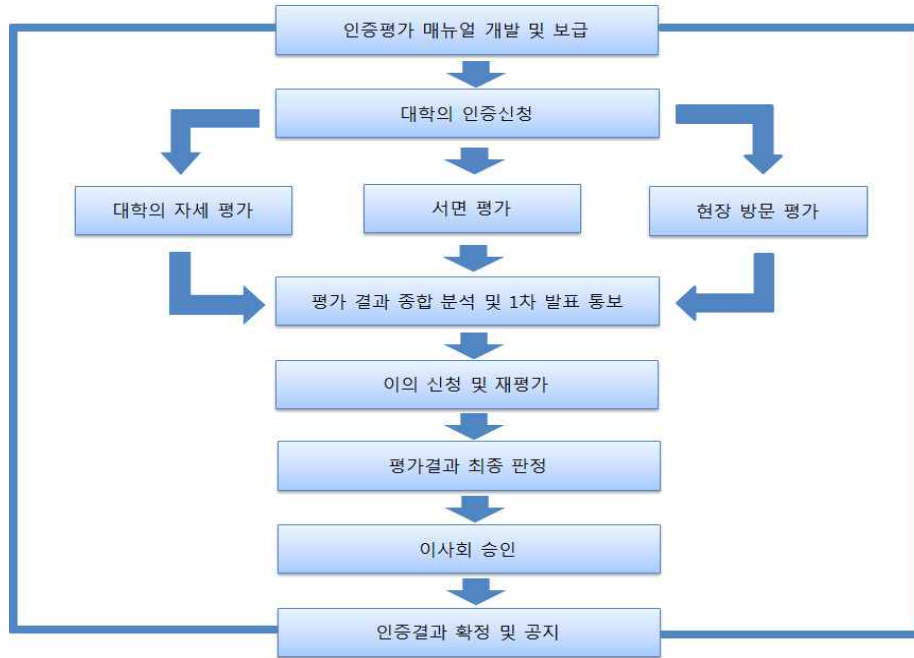
- 인증평가는 평가항목과 평가영역의 평정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며 최종 평정결과에 따른다.

아. 이사회 승인

- 상담교육인증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사회가 승인하여 확정한다.

자. 인증결과 확정 및 공지

- 상담교육인증평가원은 해당 상담관련학과의 인증·평가가 완료되면 평가 상담관련학과에 결과를 통보한다.



[그림6] 상담교육인증절차

4. 상담교육인증 행정사항(안)

각 학과는 상담교육인증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정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상담교육인증에 대한 이해와 합의

(가칭) 상담교육인증원에서 배포하는 상담교육인증편람을 통해 상담교육인증의 내용과 체제를 숙지하고, 이를 해당 학과에서 수행할 것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한다.

나. 대학본부 및 관련부서에 상담교육인증에 대한 설명 제공과 협조 확보

상담교육인증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대학본부 및 관련부서를 설득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물리적 지원을 확보한다.

다. 상담교육인증 신청

(가칭) 상담교육인증원이 제시한 상담교육인증 신청 절차에 따라 상담교육인증을 신청한다.

라.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상담교육인증 편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 자체평가의 절차는 크게 사전준비, 자체평가계획 수립, 자체평가 추진, 자체평가결과 활용 등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음
-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이전 평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상담교육인증원의 평가정책 모니터링, 평가주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 평가에 대한 기본정보 및 자료 수집, 자체평가 시행관련 공문 수발, 자체평가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업무가 추진됨
- 자체평가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자체평가추진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자체평가추진 일정 계획, 자체평가추진 소요예산 계획 등의 업무가 추진됨
- 자체평가 추진 단계에서는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자료수집 및 분석, 평가위원별 평가활동,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자체평가보고서 보고 등의 업무가 추진됨
- 자체평가결과 활용단계에서는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자체평가결과의 센터발전계획에 반영 등의 업무가 추진됨
-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

제 I 장 학과 개황

학과의 현황에 대한 개괄적 소개

제 II 장 평가 결과

1. 평가채점결과 종합

- 지표별 평가표의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제시

2. 지표별 평가표

- 영역별, 지표별 평가표 작성

- 평가의 근거자료 첨부

제 III 장 종합 논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와 대책 제시

마. 현장평가 수검

(가칭) 상담교육인증원과 일정 합의를 하여 현장평가를 받는다.

바. 이의신청

1차 평가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이의신청을 한다.

사. 평가결과 활용

최종 평가결과를 학과 운영에 반영한다.

V. 상담교육인증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망

이상에서 제시된 상담교육인증체제가 시행되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우선적으로 또는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상담교육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며 상담계에서 합의되어야 한다. 현재 상담계에서는 현행 상담교육체제나 상담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은 많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실행노력은 뚜렷하지 않다. 본 연구가 제시한 상담교육인증체제 구축은 그 해결책의 하나이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특히 학부 수준의 상담자 양성과 대학과 수주의 상담자 양성의 관계에 대한 치밀한 논의와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상담교육인증체제가 잘 구축되며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담 전문가 및 수련생들에게 본 인증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그 기준에 대한 합의, 인증에 참여의지 강화 등의 과제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상담교육인증 학과 졸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보되어야 한다. 많은 비용과 수고를 들여야 하는 상담교육인증을 각 학과가 받았을 때 실질적인 유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학과 간호의 경우 인증학과 졸업자에게 해당 국가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유익이 있으며, 공학과 경영학의 경우 기업 채용시 우선 고려대상이나 가산점 부여 등이 보장되는 유익이 있다. CACREP의 경우 졸업자들이 상담관련 국가수준 자격시험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받으며, 교수 채용시나 상담수행시 대학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일정부분 인정받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증된 상담학과 졸업자에게는 청소년상담사나 전문상담(교)사, 학회의 상담자격 등의 필요요건을 일정정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상담교육인증을 지원하는 법적, 행정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가칭) 상담법의 제정, 상담사 국가자격 신설,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등 상담교육인증을 지원, 관리, 통제하는 법적, 행정적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각 학과의 자율성을 일정정도 제한시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전문상담자 양성이 국가적 수준의 표준을 마련하고 일반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향후 상담학과 및 상담계에서는 다양한 논의와 노력을 통해 한국의 상담교육인증체제가 잘 구축, 운영되어 한국 상담의 전문화를 이루어가는 초석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령, 유형근, 손현동, 조용선, 신효선(2009). 학교상담 표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교사교육연구, 48(3). 59-78.
- 김명량, 윤우영, 김복기(2008). 한국공학교육인증의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 모형 개발, 공학교육연구, 11(2). 42-49.
- 김인규 (2008a). 학교상담의 현황과 과제, 교육비평, 24, 165-184.
- 김인규 (2008b). 대학내 상담자 양성과정의 현황과 과제, 2008 한국상담학회 연차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상담학회.
- 김인규(2009a). 학교상담법제화 방향탐색. 교육학연구, 47(1). 19-47.
- 김인규(2009b). 전문상담교사제도 발전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0(1). 517-534.
- 김인규(2009c). 학부 상담학과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0(2), 793-811.
- 김인규(2011a). 한국의 학교상담체제. 교육과학사.
- 김인규(2011b). 학교상담 종사자의 상담관련 자격증 현황 및 문제점. 한국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김인규, 이미현, 정보인(2013).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질을 위한 기초연구. 상담학연구, 14(3). 1569-1585.
- 김인규, 조남정(2010). DACUM법을 활용한 전문상담교사 직무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7(2), 97-115.
- 김인규, 조남정, 최은미(2011). Wee 프로젝트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희, 오익수, 최동욱, 권해수 (1995). 학교상담체제발전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2013).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여성가족부.
- 김혜숙, 남상인, 구혜영, 박승민 (1995). 청소년상담원 자격연수 교재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 남상인, 김인규(2009). 상담교육인증체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2009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II. 380-403.
- 명대정 (2000). 상담의 전문직화 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애, 방기연 (2006). 교육대학원 상담전공 프로그램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교육학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 분과학회 자료집. 한국교육학회.
- 박성수, 박재황, 황순길, 오익수 (1993). 청소년상담정책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 박재황, 남상인, 김창대 (1993). 청소년 상담교육과정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서영석 (2004). 상담심리사 직무분석. 한국상담심리학회 미출간 자료.
- 서영석, 백근영, 김애란, 김지영(2013). Wee 클래스 전문상담사 자격요건 및 선발기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서영석, 정향진, 김민선, 김시연(2011). 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학교상담을 중심

- 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연구보고서.
- 서영석, 김동일, 고은영, 김민선, 김애란, 최민영(2013).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 손은령 (2005). 예비교사를 위한 상담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 학생생활연구, 31, 53-72. 충남대학교 학생취업 및 생활지원센터.
- 손은령 (2011). 상담자 교육 관점에서 본 예비교사 교육의 과제. 상담학연구, 11(4), 1469-1482.
- 신동은, 최금진(2011). 한국, 일본, 대만의 공학교육인증 평가체제 및 평가기준 비교. 교육행정학연구, 29(1).
- 안현의 (2003).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국내적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5, 461-475.
- 양미진, 이소엽, 조수연(2012). 청소년상담사 핵심역량 및 보수교육 요구분석 연구보고서.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오익수, 김진희, 김광수, 전명희 (1995). 정부의 청소년상담정책 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 오익수, 이명선, 남상인 (1994). 청소년상담인력개발정책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 유성경 (1999). 청소년상담자의 교육 및 훈련. 한국청소년상담원(편). 청소년상담자론. 229-307.
- 유인근(2007).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공학교육연구. 10(2). 62-72.
- 유정이 (1997). 한국 학교상담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민, 안성희 (2003). 학교상담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담학연구, 4(1), 281-293.
- 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한국적 학교상담 모형 개발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학교 상담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9(3), 539-567.
- 이창호, 이소엽, 조수연(2011).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응시작거 개선 결과보고.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숙영, 김창대 (2002). 상담전공 대학원 교육과정 표준화연구. 교육학연구, 40, 231-250.
- 이재창 (1996). 전문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8, 1-26.
- 조병택 유병남(2006). 우리나라 대학에 있어 경영학교육의 과제와 개선방향 - 연구, 교육, 인증을 중심으로 . 상업교육연구. 14. 71-89.
- 최상근, 김동민, 오인수, 신을진, 김인규, 이일화, 이석영, 최보미(2011). Wee 프로젝트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계획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해림, 김영혜(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표준 및 활용 패키지 - 청소년지도 - 청소년상담복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지영(2008). 미국과 한국의 공학교육인증 체제 비교에 대한 사례 연구. 공학교육연구, 11(1). 23-32.

홍선미(2010). 한국사회복지교육인증제의 도입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12. 123-145.

황순길, 류진아, 이경아, 장진이, 정재우 (2005). 학교청소년상담사 학교상담 활동모형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황순길, 이창호, 안희정, 조은경 (2000).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실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황순길, 주영아, 김인규, 김태선 (2004).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2014). 2014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설명회 자료집.

한국간호평가원(2012).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간호학 학사학위과정).

한국경영교육인증원(2007). 경영학교육 인증기준 및 예비 심사 인증신청서 작성편람.

한국공학교육인증원(2005). 공학인증기준 (KEC 2005).

한국의학교육평가원(2007). 제2주기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위한 의과대학 인정평가기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8).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accreditations of programs in profession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2003). The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national model: A framework for school counseling programs. Alexandria, VA: Author.

CACREP (2009). CACREP Standards.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CACREP(2009). CACREP Accreditation Manual.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http://www.cacrep.org/>

Commission on Accreditation(2009a).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Accreditation of Programs in Profession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www.apa.org/ed/accreditation/>

Commission on Accreditation(2009b). Accreditation Operating Procedures of the Commission on Accredita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www.apa.org/ed/accreditation/>

- 부록. 1. 한국상담교육인증원(가칭) 정관
2. 학부 상담교육인증 기준 및 평가표

부록 1.

한국상담교육인증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한국상담교육인증원"이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Counseling Education"로 한다.

제2조(목적) 인증원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있는 상담사 양성과 상담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상담교육 발전과 상담 교육 전반에 걸친 인증평가 사업과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인증 및 인증자문을 시행함으로써 상담교육 전반에 관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3조(사업)

① 인증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담교육인증에 대한 정책, 절차, 기준에 관한 사항
2. 최소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기관 식별에 관한 사항
3. 세분화된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식별에 관한 사항
4. 상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장래 발전에 관한 사항
5. 상담 교육의 발전 및 촉진에 관한 사항
6. 상담 교육발전과 인증을 돕기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7. 상담교육과 관련된 공공 목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평가원의 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41"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지원시설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5. 고문 2인

② 임원은 비상임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수의 임원을 상임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선출)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원장은 공모하여 원장후보추천단에서 추천하고 이사회 인준을 얻어 위촉한다.
- ③ 이사의 선출은 이사 임기 만료 1개월 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⑤ 원장 추천단은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임원 결격 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증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
6.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제9조(이사의 임무)

①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대표한다.

2. 원장은 인증원을 대표하며 인증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② 상임임원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인증원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회계 감사
-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 ④ 제3호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법인의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상담인증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상담교육인증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을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제 3 장 이 사 회

제13조 (이사회 구성)

- ① 인증원 이사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이사회 개최) 이사회는 제5조 제1항의 자료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2회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때

2. 이사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
 4.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요청이 있는 때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업무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증의 재심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인증원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이사회 개최와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결권 제한) 이사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1. 인증원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과 관련된 사항

제 19조(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 ② 이사회 회의록에는 당해 출석이사 중 기명날인 이사로 선출된 2명의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 20조(재산의 구분)

- ① 인증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설립할 때의 재산과 설립 후에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1조(재산의 관리)

① 인증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및 용도변경 등의 처분을 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인증원의 특수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경비의 조달방법) 인증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응시수수료, 상담교육기관 인증평가 및 전문상담사 교육기관 지정 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 교육연수 및 출연금, 기타의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제24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다음 해 운영비 또는 제22조에 의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5조(수익사업)

① 인증원은 제2조의 목적과 제3조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6조(예산 및 사업계획서)

①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인증원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다음 회계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수립·편성하여 이사회 의결과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28조(회계 연도) 인증원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5 장 조직 및 운영

제29조(조직)

- ① 상담교육인증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용, 승진,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따로 규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30조(정관의 변경) 인증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과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31조(해산신고) 인증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을때는 해산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처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3조(준용 규칙)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관례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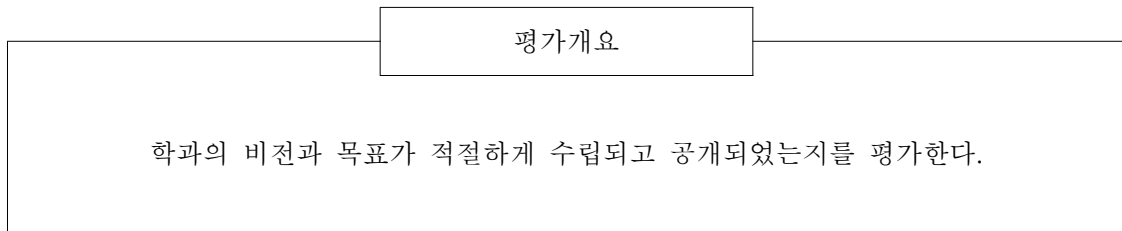
부 칙

- ① (시행일) 본 정관은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임원의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정관 시행되기 전에 선임된 임원은 종전 정관의 임기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부록 2. 학부 상담교육인증 기준 및 평가표

1. 학과운영

1.1 비전 목표



1-1-1

학과는 대학 및 지역사회의 특성, 상담 환경 변화, 국내외 상담직에서 요구하는 상담자 핵심역량 등을 반영하여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구성원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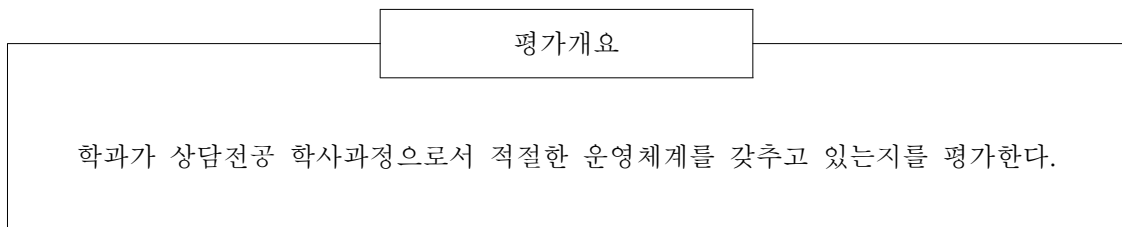
[인증기준]

- ①학과는 국내외 상담전문직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상담전문직의 보편적 특성, 대학 특성,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학과의 비전 및 교육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한다.
- ②학과의 비전과 목표가 적절하게 수립되고 공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근거자료]

1. 대학요람
2. 학과 홍보 자료
3. 교육목적 및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2 운영체계



1-2-1

학과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술하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인증기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구성원과 일반대중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

[근거자료]

1. 교육과정 수강 편람
2. 교육관련 학사관리 및 관련 학칙

1-2-2

학과는 고등교육법 제 2조에 근거한 교육기관의 학사학위 수여과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인증기준]

- ①학과 졸업 후 학사학위과정이 발급된다.
- ②학과는 고등교육법 제 2조에 근거한 교육기관의 학사학위 수여과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근거자료]

1. 대학요람
2. 학생지도 체제 관련 자료

1-2-3

학과는 해당 대학 및 학과의 교육목표에 적합하도록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 등의 졸업요건을 제시한다.

[인증기준]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이 해당 대학 및 학과의 교육목표에 적합하다.

[근거자료]

1.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등의 관리 규정
2. 학생 성적표
3. 전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2. 교육과정

2.1 학습 목표

평가개요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이 상담자의 기본역량을 개발하는데 적합하도록 편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1-1

상담교육 프로그램은 졸업 시 학습 성과로서 다음의 역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발달과 문화 이해 능력
- 상담이론 및 상담문제 이해 능력
- 상담개입 능력
- 심리검사 이해, 실시, 해석 능력
- 상담자 윤리이해 및 적용 능력
- 행정실무 능력
- 자기성장 및 소진 대처 능력

[인증기준]

- ①전공 학습 목표가 7개 역량을 통합하고 있다.
- ②7개 역량을 개발, 함양하는 프로그램 및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자료]

1.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2. 학과의 교육목표 진술문
3. 교육목표 달성체계도

2.2 교과목 운영

평가개요

교육과정은 학생이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하여 상담사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교과목을 적절하게 구성되는지를 평가한다.

2-2-1

교과목 운영은 인간발달, 조력관계, 검사 및 평가, 연구와 통계, 실습 및 기타 영역이 균형있게 편성되어야 한다.

[인증기준]

교과목 운영은 6개 영역의 적절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근거자료]

1. 교육과정 편성표
2. 과목별 강의계획서

2.3 실습운영

평가개요

학과는 실습교과목의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실습교과목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상담실습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3-1

실습과목과 상담현장체험의 그룹 슈퍼비전은 최대 20명의 학생을 넘기지 않는다.

[인증기준]

실습과목과 상담현장체험의 그룹 슈퍼비전은 최대 20명의 학생을 넘기지 않는다.

[근거자료]

1. 규정 지침
2. 슈퍼비전 지도 일지/ 보고서
3. 실습 교과목별 운영지침서

2-3-2

학생은 재학기간 중 2학기 이상의 상담실습과 현장체험을 한다.

[인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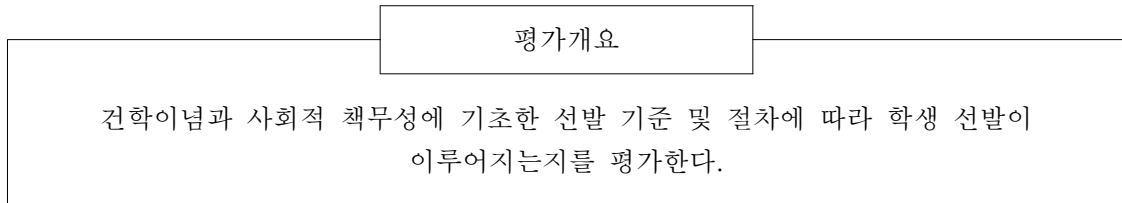
학생은 재학기간 중 2학기 이상의 상담실습과 현장체험을 한다.

[근거자료]

1. 상담실습 운영 규정 또는 지침
2. 학생의 상담실습 지도일지/ 보고서

3. 학생

3.1 학생선발



3-1-1 학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 인성특성
- 대학과정 수학능력
- 상담관련 진로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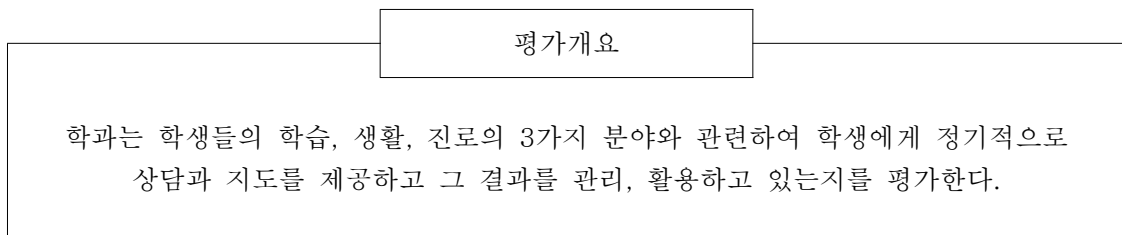
[인증기준]

학생선발 기준으로써 인성특성, 대학과정 수학능력, 상담관련 진로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근거자료]

1. 학생선발 제도 관련자료
2. 입학제도에 대한 입학정책 관련 자료

3.2 학생지도



3-2-1

학과는 학생의 대학생생활 적응과 진로개발을 위해 지도교수제도 등 학생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학습, 생활, 진로 등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상담과 지도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관리, 활용하고 있다.

[인증기준]

- ①학과는 학생의 대학생생활 적응과 진로개발을 위해 지도교수제도 등 학생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다.
- ②학습, 생활, 진로 등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상담과 지도를 제공한다.

③그 결과를 관리, 활용하고 있다.

[근거자료]

1. 학생지도 관련규정 체제
2. 학생 상담 및 지도실적
3. 상담 결과 활용 실적

3-2-2

학과는 학생의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 제공 등과 같은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예산을 운용·집행한 실적이 있다.

[인증기준]

- ①지원시스템이 있다.
- ②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보, 집행되고 있다.

[근거자료]

1. 지원시스템 관련 자료
2. 지원시스템 관련 예산
3. 지원시스템 관련 자금

3.3 학생지원

평가개요

학과가 신입생 및 재학생이 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나 학과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지 평가한다.

3-3-1

학과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장학제도와 같은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증기준]

- ①장학제도 등 학생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 ②적절한 비율의 학생이 학생지원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근거자료]

1. 장학금 지급 등 학생 지원 및 체제 자료
2. 장학생 선발 및 지급 현황자료
3. 학과의 학생지원 실적

3-4 학과 적응 및 직업 적응 프로그램

평가개요

학교 및 학과가 학생들의 학과 적응 및 직업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학생의 취업과 상담직무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4-1

학과는 학생의 학과 적응과 상담직무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과 적응 프로그램 및 재학생 대상 직업 적응 프로그램을 교과목에 정기적으로 실시, 운영하고 있다.

[인증기준]

- ① 학과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② 적절한 비율의 학생이 학과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근거자료]

1. 최근 3년간 학과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용
2. 학과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 운영 실적

4. 교수

4.1 교수 확보

평가개요

학과는 임무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량과 자질이 있는 교수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1-1

전체 학생에 대한 전임 교수의 비율이 40:1을 넘지 않는다.

[인증기준]

전체 학생에 대한 전임 교수의 비율이 40:1을 넘지 않는다.

[근거자료]

1. 학과 교수 및 학생 현황표

4-1-2

학과에서는 다양한 교수진의 모집, 채용,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한다.

[인증기준]

- ①상담관련 다양한 분야의 학과 교수를 채용하기위해 노력을 하였다.
- ②학교는 교수채용, 승진, 재계약 관련 적절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근거자료]

1. 전임교원 명부
2. 대학 및 학과 인사규정
3. 교수채용 공고문

4-1-3

학과는 학과의 임무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이 있는 교수진으로서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는 학과 소속 교수를 확보한다.

- 상담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 담당 영역과 관련한 준비와 경험
- 상담분야 전문학회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전문가 자격을 통한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 상담 전문가 활동 및 상담분야 전문 학회 활동에 참여

[인증기준]

학과의 교수는 상담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담당 영역과 관련한 준비와 경험, 상담분야 전문학회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전문가 자격을 통한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상담 전문가 활동 및 상담분야 전문학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준을 충족한다.

[근거자료]

1. 교수별 이력서

4-1-4

학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비전임 교수(예: 객원교수, 산학협력교수, 임상교수 등)를 채용하여 프로그램의 임무, 목적과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상담 및 연관분야 박사수료 소지자
- 담당 교육 분야 관련 준비와 경험
- 상담분야 전문 학회 회원, 적합한 자격을 통한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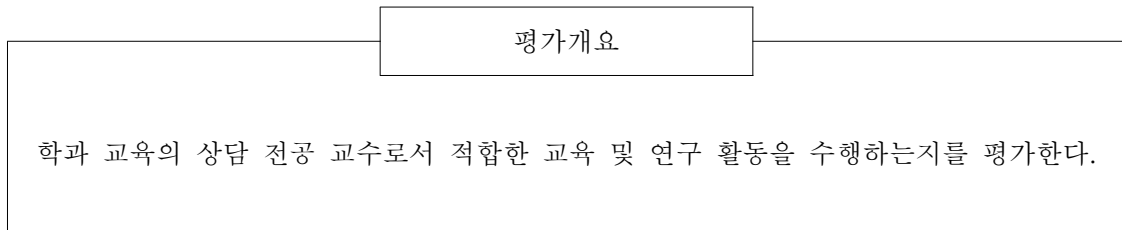
[인증기준]

학과의 비전임 교수는 상담 및 연관분야 박사수료 소지자, 담당 교육 분야 관련 준비와 경험, 상담분야 전문 학회 회원, 적합한 자격을 통한 상담전문가의 정체성을 충족한다.

[근거자료]

1. 교수별 이력서

4.2 교수업적



4-2-1

전임교수의 수업시수가 전체 교과목 수업시수의 60% 이상 수준이다.

[인증기준]

전임교수의 수업시수가 전체 교과목 수업시수의 60% 이상 수준이다.

[근거자료]

1. 전임 교수 수업담당 현황

4-2-2

교수진은 상담분야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인증기준]

교수진은 상담분야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근거자료]

1. 교수별 최근 3년간 연구실적

4.3 교수개발진

평가개요

대학이 교수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각종 연구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적절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3-1

학과는 교수들이 교육자와 연구자로서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체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수 개발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인증기준]

- ①대학은 교육 및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교수개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 ②상담전공 교수들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지원체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근거자료]

1. 대학의 교수 개발 지원 체제 자료
2. 교수별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5. 교육환경

5.1 행정체계

평가개요

학과는 상담교육의 특성과 학생규모를 고려하여 교수 및 학습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5-1-1

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인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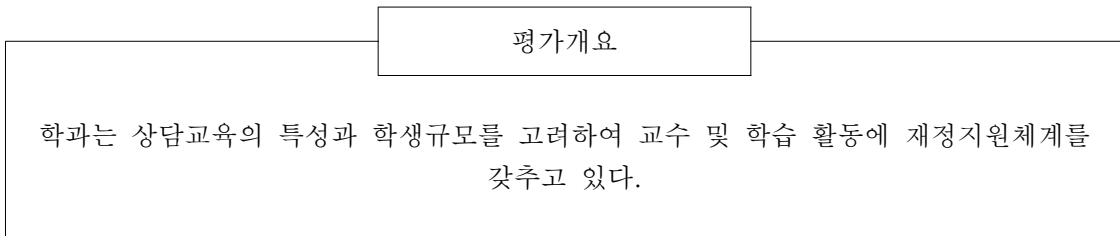
①학과는 대학의 학칙에 부합하는 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기구표, 인력 등에 관한 문서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②학과장은 상담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전임교수로서 학과의 교수 인사, 예산 책정 등을 포함하여 학과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근거자료]

- 1. 업무 회의록 활동 실적
- 2. 행정업무별 예산 집행 내역

5.2 재정지원



5-2-1

교육기관은 이 프로그램의 학습 환경에 대한 연속성, 질,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한다.

[인증기준]

①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의 학습환경에 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②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의 학습환경에 대한 실습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

[근거자료]

- 1. 학과예산편성내용(최근 3년)

5.3 교육시설

평가개요

학과는 상담교육의 특성 및 학생규모를 고려하여 교수와 학습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갖추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실습교육시설과 기자재를 구비하고 적절한 임상실습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5-3-1

교육기관은 학생지도와 수업 준비 및 연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외에 교수실,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을 확보하고 운영하여 모델링, 상담시연, 슈퍼비전, 훈련에 도움이 되는 상담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인증기준]

- ①교육기관은 대학 내, 외에 교수실,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을 확보, 운영하고 있다.
- ②교육기관은 모델링, 상담시연, 슈퍼비전, 훈련에 도움이 되는 상담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근거자료]

- 1. 교육시설 및 지원시설 관리 내역
- 2. 학과의 실습 운영 규정

5.4 행정 및 교육보조 인력

평가개요

대학은 교육, 교수, 학생, 연구, 입학, 재정 등으로 구분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와 인력이 있어야 한다.

5-4-1

학과 행정 업무를 위한 학과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 보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인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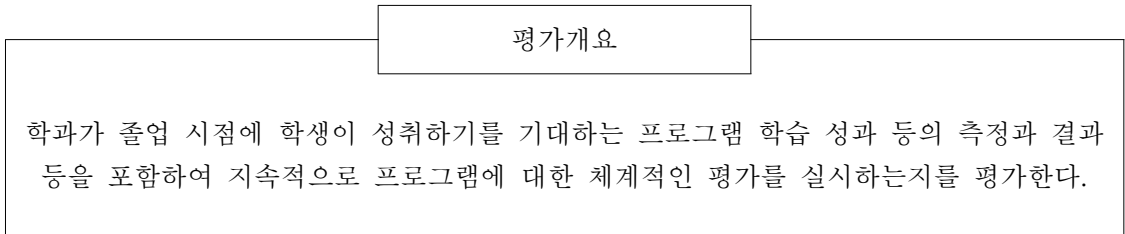
- ①학과 행정 업무를 위한 학과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다.
- 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 ③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보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근거자료]

1. 학과 행정업무 내역

6. 교육성과

6.1 교육성과평가



6-1-1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학과의 임무, 목표, 학생의 학습 성과 등의 측정과 결과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해야하며 평가 계획은 다음을 포함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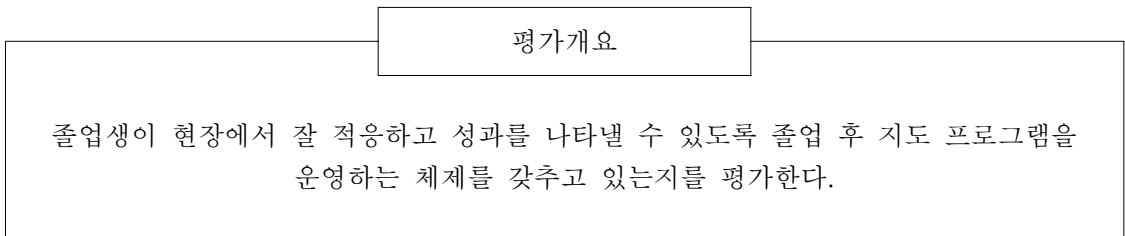
[인증기준]

- 프로그램,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자의 특성에 대한 검토
- 전문가 정체성, 전문적 지식 및 실천 등에서의 학습과 수행에 대한 평가
- 프로그램의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결과를 문서화한 공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열람 가능한 형태로 제시

[근거자료]

1. 각종 평가 결과 보고서
2. 학생성정 부여기준
3. 최근 3년간 성적 분포 현황

6.2 졸업생 진로



6-2-1

대학은 학부생의 졸업 후 진로를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증기준]

- ①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②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다.

[근거자료]

- 1.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프로그램
- 2. 최근 3년간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프로그램 현황

I. 조직운영 영역

영역	평가지표(문항)	평가내용	평가기준	
I. 학과 운영 (16)	1. 학과는 대학 및 지역사회의 특성, 상담 환경 변화, 국내외 상담직에서 요구하는 상담자 핵심 역량 등을 반영하여 상담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구성원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한다.	1.1 비전목표 (4)	<p>① 학과는 국내외 상담전문직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상담전문직의 보편적 특성, 대학 특성,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학과의 비전 및 교육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한다.</p> <p>② 학과의 비전과 목표가 적절하게 수립되고 공개되었는지를 평가한다.</p> <p>-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p>	정량
	1. 학과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술하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1.2 운영체계 (4)	<p>①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구성원과 일반대중이 알 수 있도록 구성한다.</p> <p>②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구성원과 일반대중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p> <p>-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p>	정량
	2. 학과는 고등교육법 제 2조에 근거한 교육기관의 학사학위 수여과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1.2 운영체계 (4)	<p>① 학과 졸업 후 학사학위과정이 발급된다.</p> <p>② 학과는 고등교육법 제 2조에 근거한 교육기관의 학사학위 수여과정으로 명시되어 있다.</p> <p>-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p>	정량
	3. 학과는 해당 대학 및 학과의 교육목표에 적합하도록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 등의 졸업 요건을 제시한다.	1.2 운영체계 (4)	<p>① 전공과목 이수 기준이 해당 대학 및 학과의 교육목표에 적합하다.</p> <p>②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이 해당 대학 및 학과의 교육목표에 적합하다.</p> <p>-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p>	정량

II. 과정 (16)	1. 상담교육 프로그램은 졸업 시 학습 성과로서 다음의 역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1 학습목표 (4)	① 전공 학습 목표가 7개 역량을 통합하고 있다. ② 7개 역량을 개발, 함양하는 프로그램 및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 인간발달과 문화이해 능력 · 상담이론 및 상담문제 이해 능력 · 상담개입 능력 · 심리검사 이해, 실시, 해석 · 상담자 윤리이해 및 적용 능력 · 행정실무 능력 · 자기성장 및 소진 대처 능력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1. 교과목 운영은 인간발달, 조력관계, 검사 및 평가, 연구와 통계, 실습 및 기타 영역이 균형있게 편성되어야 한다.	2.2 교과목운영 (4)	①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강의법 이외에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적절한 학생 수 규모의 강좌를 운영한다. ② 교과목 운영은 6개 영역(인간발달, 조력관계, 검사 및 평가, 연구와 통계, 실습 및 기타)의 적절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1. 실습과목과 상담현장체험의 그룹 슈퍼비전은 최대 20명의 학생을 넘기지 않는다.	2.3 실습운영 (4)	① 충분한 실습시간을 제공하여 이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② 실습과목과 상담현장체험의 그룹 슈퍼비전은 최대 20명의 학생을 넘기지 않는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2. 학생은 재학기간 중 2학기 이상의 상담실습과 현장체험을 한다.	2.3 실습운영 (4)	① 실습교과목 교수는 충분한 지도시간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학생의 실습을 지도하고 학습성과를 평가 관리한다. ② 학생은 재학기간 중 2학기 이상의 상담실습과 현장체험을 한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III. (20)	1. 학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3.1 학생선발 (4)	① 학생선발 기준으로써 인성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② 학생선발 기준으로써 대학외정 수학능력이 제시되어 있다. ③ 학생선발 기준으로써 상담관련 진로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 우수(4): 3개 항목 해당 - 양호(3):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2. 학과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개발을 위해 지도교수제도 등 학생지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학습, 생활, 진로 등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상담과 지도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관리, 활용하고 있다.	3.2 학생지도 (4)	① 학과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개발을 위해 지도교수제도 등 학생지도 체계를 갖추고 있다. ② 학습, 생활, 진로 등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상담과 지도를 제공한다. ③ 그 결과를 관리, 활용하고 있다. - 우수(4): 3개 항목 해당 - 양호(3):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3. 학과는 학생의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 제공 등과 같은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예산을 운용·집행한 실적이 있다.	3.3 학생지도 (4)	① 학생의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 제공 등과 같은 지원시스템이 있다. ② 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보, 집행되고 있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4. 학과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장학제도와 같은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3.4 학생지원 (4)	① 장학제도 등 학생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② 적절한 비율의 학생이 학생지원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5. 학과는 학생의 학과 적응과 상담 직무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과 적응 프로그램 및 재학생 대상 직업 적응 프로그램을 교과목에 정기적으로 실시, 운영하고 있다.	3.5 학과 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 (4)	① 학과 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적절한 비율의 학생이 학과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IV. (28)	1. 전체 학생에 대한 전임 교수의 비율이 40:1을 넘지 않는다.	4.1 교수확보 (4)	①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전임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② 전체 학생에 대한 전임 교수의 비율이 40:1을 넘지 않는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2. 학과에서는 다양한 교수진의 모집, 채용,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한다.	4.1 교수확보 (4)	① 상담관련 다양한 분야의 학과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② 학교는 교수채용, 승진, 재계약 관련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3. 학과는 학과의 임무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역량과 짝이 있는 교수진으로서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는 학과 소속 교수를 확보한다.	4.1 교수확보 (4)	① 상담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② 상담 영역과 관련한 준비와 경험 ③ 상담분야 전문학회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전문가 자격을 통한 상담전문의의 정체성 ④ 상담 전문가 활동 및 상담분야 전문 학회 활동에 참여 - 우수(4): 4개 항목 해당 - 양호(3): 3개 항목 해당 - 보통(2): 2개 항목 해당 - 미흡(0): 1개 해당항목	정량
	4. 학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비전임 교수(예: 객원교수, 산학협력교수, 임상교수 등)를 채용하여 프로그램의 임무, 목적과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4.1 교수확보 (4)	① 교수는 상담 및 연관분야 박사수료 소지자, ② 담당 교육 분야 관련 준비와 경험, ③ 상담분야 전문 학회 회원, 적합한 자격을 통한 상담전문의의 정체성 - 우수(4): 3개 항목 해당 - 양호(3):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p>1. 전임교수가 수업시수가 전체 교과목 수업시수의 60% 이상 수준이다.</p>	<p>4.2 (4)</p>	<p>① 학과는 전임교원의 수업시수를 관리하며, 전임교원의 전공과목에 책무성을 유지하고 있다. ② 전임교수가 수업시수가 전체 교과목 수업시수의 60% 이상 수준이다.</p> <p>-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p>	<p>정량</p>
<p>2. 교수진은 상담분야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p>	<p>4.2 교수업적 (4)</p>	<p>① 교수진은 대학의 교수 업적 평가 제도에 부합하여 교수 역량을 개발하고 학문분야 발전에 기여한다. ② 교수진은 상담분야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p> <p>-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p>	<p>정량</p>
<p>3. 학과는 교수들이 교육자와 연구자로서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체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수개발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p>	<p>4.3 교수개발지원 (4)</p>	<p>① 대학은 교육 및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교수개발을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② 상담전공 교수들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지원체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p> <p>-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p>	<p>정량</p>

V. 환경 (16)	1. 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5.1 행정체계 (4)	<p>①학과는 대학의 학칙에 부합하는 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기구표, 인력 등에 관한 문서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p> <p>②학과장은 상담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전임교수로서 학과의 교수 인사, 예산 책정 등을 포함하여 학과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p> <p>-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p>	정량
	2. 교육기관은 이 프로그램의 학습 환경에 대한 연속성, 질,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한다.	5.2 재정지원 (4)	<p>①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의 학습환경에 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p> <p>②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의 학습환경에 대한 실습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p> <p>-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p>	정량
	3. 교육기관은 학생지도와 수업준비 및 연구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내,외에 교수실,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을 확보하고 운영하여 모델링, 상담시연, 슈퍼비전, 훈련에 도움이 되는 상담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5.3 교육시설 (4)	<p>①교육기관은 대학 내, 외에 교수실,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을 확보, 운영하고 있다.</p> <p>②교육기관은 모델링, 상담시연, 슈퍼비전, 훈련에 도움이 되는 상담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p> <p>-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p>	정량
	4. 학과 행정 업무를 위한 학과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 보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5.4 행정 및 교육보조인력 (4)	<p>①학과 행정 업무를 위한 학과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다.</p> <p>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p> <p>③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보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p> <p>- 우수(4): 3개 항목 해당 - 양호(3):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p>	정량

VI. 교육 성과 (8)	1.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학과의 임무, 목표, 학생의 학습 성과 등의 측정과 결과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6.1 교육성과 평가 (4)	<p>다음을 포함한다.</p> <p>① 프로그램,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자의 특성에 대한 검토</p> <p>② 전문가 정체성, 전문적 지식 및 실천 등에서의 학습과 수행에 대한 평가</p> <p>③ 프로그램의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결과를 문서화한 공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열람 가능한 형태로 제시</p> <p>- 우수(4): 3개 항목 해당 - 양호(3):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p>	정량
	2. 대학은 학부생의 졸업 후 진로를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6.2 졸업생진로 (4)	<p>①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p> <p>②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다.</p> <p>-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p>	정량

발표1

상담학과의 입장

유현실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장은진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김상민 김천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이호준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좌장)

상담교육인증의 방향과 과제, 상담학과의 입장 I

유현실(단국대학교 상담학과)

최근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전문 상담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재 각 대학에서 배출하고 있는 상담자의 역량은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항상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문 상담자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반갑고도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 연구에 상담학과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상담교육인증체제의 건설적인 구축과 시행을 위해 연구보고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꼈던 의문점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제시된 상담교육인증체제가 지향하는 상담교육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즉 상담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졸업자의 목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입니다. 현재 각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체제나 경영교육인증체제의 경우 학부의 교육과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상은 공대 학부 졸업자나 경영대 학부 졸업자에 대해 산업체에서 기대하는 공학적 지식과 기술 또는 경영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 역량이라는 준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공대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이 정도 수준의 역량은 갖추어야 한다는 기대, 경영대를 졸업한 자에게는 이 정도 수준의 경영 역량을 갖추길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의학이나 간호학의 경우는 특히나 요구되는 역량의 요소들이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체제를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사범대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는 국가에 의한 교사교육 체제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인증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학교육, 경영교육, 의학 및 간호학 교육, 교사교육 등에 대한 인증은 모두 학부 졸업자가 현업에 배치되었을 때 수행해야 하는 직무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상담교육은 학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재상에 대하여, 상담 현장에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역량 수준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을 볼 때, 현재 학부 상담전공의 경우 학부만을 졸업한 상태에서 상담현장에서 직장을 얻을 가능성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상담 관련 전공 대학원 과정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상담 기관에 전일제 근무자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취득은 최소한의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수도권만을 기준으로 할 때 상담전공 학부 졸업자가 상담 관련 분야의 직업을 얻고자 한다면, 대학원과정을 먼저 진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전문상담자 자격증 제도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관련 주요 학회인 한국상담학회(2015년 개정)나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자격관리 제도에 따르면, 모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야 비로소 수련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요 학회 자격증 제도에 따르면, 학부 과정에서의 상담수련은 전문 상담자 자격증을 취득하는데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상담전공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상담전공 학부 졸업자가 지역 위센터나 청소년상담 기관에 전일제 상담자로 취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학부 졸업자에게는 석사학위 졸업자만큼이나 실무 수행 역량이 중요하고, 학부 상담교육 과정에서도 충분한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각 지역마다 학부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상담 전문성에 대한 준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증체제라는 표준화된 시스템이 이러한 지역적, 혹은 대학 자체의 특수성을 어떻게 끌어 안을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상담교육인증체제에서 주요 인증대상 프로그램인 학부에서의 상담교육과 대학원과정에서의 상담교육이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상담교육인증체제에서 참고한 미국의 상담교육인증체제인 CACREP이나 미국 APA 인증체제인 CoA는 모두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체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제시된 상담교육인증체제는 대학원 상담교육 과정을 평가, 관리하는 틀로 당장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부에서의 상담교육 내용을 대학원 중심의 상담교육 또는 전문상담사 또는 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상담수련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학부 상담교육이 우리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교육목표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교육의 목표가 본격적인 전문 상담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면, 학부 교육의 목표는 상담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배양하고 사회 진출 후 다양한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창의성과 진취성을 기르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학부교육이 추구해야 할 역량이라고 가정한다면 학부 상담교육은 상담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기술의 배양보다는(어차피 바로 상담현장으로 투입하는 데 제한이 많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상담자 자질 배양을 위한 기초 과목이나 융합적 사고력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교과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과 대학의 특성화에 근거하여 학부 상담교육이 운영된다면, 과연 인증체제라는 표준화된 방식이 학부교육의 유연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상담교육인증의 방향과 과제, 상담학과의 입장 II

장은진(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요즘처럼 뉴스의 상당부분을 장식하는 사건이나 사고(예: 비행기 추락 조종사 사건, 총기 사건 등)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상담요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상담교육 인증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이 논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추진과 공고한 정착을 위해 근본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상담교육인증체제에서 요구하는 기본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학과를 설립할 때는 상당부분 관련 학문의 전문성에 관한 시스템과 커리큘럼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나 연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국 상담학과의 실태나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는지와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만약, 이미 대부분의 대학에서 인증체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상담교육인증체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필요성은 거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학생모집과 관련하여 상담학과와 관련된 충분한 시스템이나 교수진을 갖추지 못한 채, 학과명을 바꾸거나 전공을 개설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까지 고려하여 학부 상담학과나 상담전공에 관한 현실적인 실태조사결과를 검토 후, 인증체제 구축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담교육인증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학과나 학교에서 인증체제를 갖추고 통과해야 할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처럼 국가에서 요구하는 대학평가가 중요한 시점에서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증체제를 위해 학과, 특히 학교가 얼마나 노력하고 협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제발표의 과제와 전망에서 밝히신 것처럼 인증체제를 통과한 학과와 졸업생에 대해서만 학회나 국가수준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거나 혹은 과목면제나 가산점 부여 같은 이익이나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학과 내에서도 인증평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학과에서는 비용과 시간의 노력과 투자에 대해 학생들과 학교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증체제에 대한 원래의 필요성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과에 대해 또 하나의 부담과 행정업무 가중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에서 상담을 전공하지 않은 관련 대학원생이나 기존 업무 종사자에 비

해 현 상담전공 학부생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부에서 상담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원생에 비해 훨씬 많은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충분한 실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의 자격요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인증제까지 도입할 경우 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한 학과의 졸업생이 받게 되는 현실적인 불이익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증체제를 더욱 현실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증체제(안)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상담교육인증기구(안)의 성립에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형태의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해 주시면 이에 대한 관련 구성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합의 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학과운영** 부분에서 일률적인 비전과 목표 설정이 아니라 학교의 건학이념과 학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 설정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셋째, **교육과정**의 학습목표나 운영에서 상담관련 지역사회 기여 및 이바지라는 부분의 첨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담이 추구해야 할 고유의 목적이나 목표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학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교과목 운영**에서 기존에 교직과목이나 복수전공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기준이나 현실적인 대안은 어떠해야 하는지, **실습운영**부분에서는 슈퍼비전을 전임교수가 직접 하는 것만 인정이 되는지 혹은 실습기관의 슈퍼바이저가 하는 것도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넷째, **학생선발**에서 전체 학교평가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학의 건학이념 및 개별 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생지원**부분에서는 학과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학교의 규모나 재정상태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지원도 근거자료 항목에 함께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교수부분에서는** 상담전공에 대해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학교의 졸업학위과정에서 상담전공이라는 세부전공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미 임용된 교수가 상담은 아닌 관련 전공일 경우 어떻게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발표에서 제시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충족하면 되는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전임 교수의 요건에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박사수료 이상, 혹은 석사졸업의 경우 현장경험 5년(혹은 7년?) 이상 등의 현실적인 조건의 세부적 요소가 첨가되면 좋겠습니다. **교수업적**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부가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임교수의 수업시수를 산출할 때, 전임교수가 안식년을 갔을 경우 어떻게 탄력적으로 평

가할지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개발지원에는 연구비, 학회 지원비 등이 근거자료에 첨가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성과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주로 언급하였는데, 프로그램은 보다 세부적인 항목이므로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년 간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서 체계적이고 방대한 인증체제를 만드셨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안을 한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더욱 의미 있는 상담교육인증체제를 구축하실 것으로 믿고 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교육인증의 방향과 과제, 상담학과의 입장 III

김상민(김천대학교 상담학과)

1. 상담교육인증을 통하여 정리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통합적인 교육인증체제를 보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밝힙니다. 의학, 간호학, 공학, 경영학 등의 학문영역에서 대표적으로 고등교육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타 분야에서 인증제를 연구하여 상담교육인증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2. 또한, 상담교육인증체제구축방안 9쪽의 “상담학계 영역은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등 상담관련 전문학회와 대학원 수준에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상담관련 자격 발급, 학부에 이은 대학원에서의 상담교육을 권장하고 있어 학부 상담학과 교육인증에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상담현장 영역은 학부 졸업생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상담관련 산업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청소년상담, 학교상담, 아동상담 등 상담 직접 관련 분야와 기업체 인사 파트, 대인서비스 관련 사업, 교육관련 사업 등 상담 간접 관련 분야가 포함된다. 이들은 상담학과 졸업생을 직접 활용하면서 대학에서의 상담교육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이 인증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학회와 다양한 현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담교육인증제가 이처럼 다양한 분야를 어떻게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보다 깊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다양함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하면서 체계화된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3. 상담교육인증제가 제도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해야 한다.

4. 현재 대학원 중심의 상담학이 학부중심으로 관심이 이동이 되어야 합니다. 학부에서는 상담학의 이론과 실재를 훈련하여 현장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학부생들의 취업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학원은 연구중심으로 보다 수준 높은 질적인 향상을 기해야 합니다.

5. 16쪽의 “상담교육인증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첫째, 상담교육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며 상담계에서 합의되어야 한다.

둘째, 상담교육인증 학과 졸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상담교육인증을 지원하는 법적, 행정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하나 하나가 큰 과제들이며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 하고 연구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6. 상담국가고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시험자격을 상담교육인증제를 필한 학교에 대해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상담교육인증제가 보다 빨리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 학부생들의 취업문을 열어주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학원생을 찾는 사회 분위기를 학부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8. 협의회는 학부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발표2

상담학계의 입장

반신환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장

김택호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검정위원장

김지현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동민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좌장)

상담교육인증의 방향과 과제, 상담학계의 입장 I

-성과와 수요 중심으로-

반신환 (한남대 기독교학과,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장)

상담계 일원으로서 상담교육인증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그것이 상담자와 상담계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상담교육인증의 방향과 과제를 성과와 수요의 촉진이라고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더 촉진하려고 한다. 이것을 김인규(2015)의 “상담교육인증체제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에서 교육연수인증기관의 구축을 진행하는 경험을 근거로, 공학교육인증기준2015(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4)과 KEC2015인증평가관정가이드(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4)와 비교하면서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성과에 근거한 인증체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김인규(2015)에서 상담교육 인증평가의 목적은 “성과 중심 교육 체제”(p. 4.)라고 선언하면서, 프로그램의 학습성과로 개발되는 졸업생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2번째 기준인 교육과정의 학습목표로 7개를 제시한다. 그것은, “인간발달과 문화 이해 능력, 상담이론 및 상담문제 이해 능력, 상담개입 능력, 심리검사 이해, 실시, 해석 능력, 상담자 윤리이해 및 적용 능력, 행정 실무 능력, 자기성장 및 소진대처 능력”(p. 4.)이다. 그런데 이 능력에 대한 제시 바로 다음에 “교과목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6개 교과영역이 제시된다. 성과 중심의 인증체제를 핵심 교과과정 중심의 인증체제로 전환시키는 느낌이다. 이와 같은 전환의 배경에는 상담학계가 대학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 졸업생의 성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추측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과목에 대한 기준을 더 단순하게 하거나 대학의 자율에 맡길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성과의 기준, 즉 학습성과로 개발되는 졸업생의 내용에서 확장이 필요한 내용을 2개를 제시한다. 하나는 전문성의 계속 성장을 위한 능력이다. “자기성장 및 소진대처 능력”(김인규, 2015)이 제시되었지만,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인간에 대한 과학적 이론 그리고 상담 이론과 기술은 계속 가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신 정보, 연구 결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다른 하나는 정신장애의 진단체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상담이론 및 상담문제 이해 능력”이나 “행정실무 능력”(김인규, 2015)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정신장애의 진단체계라는 것이 중증의 이상심리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의 문제와 고민도 진단명이나 진단부호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언어가 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능력이 김인규(2015)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물론 정신의학과와의 갈등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지만, 이상심리와 정신장애의 진단체계는 명시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셋째, 교과과정이나 방법의 혁신성을 강조하는 상담교육인증의 원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증의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 기준을 사용하는 정신이나 원리가 부족하

다. 목적으로 제시되는데, 너무 단순하다. 혁신성에 대한 언급은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김인규, 2015)이라는 구절로만 되어 있다. 인증의 원리라는 독립된 장이 적절할 것 같다. 그리고 인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실험, 혁신, 그리고 변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넷째, 상담교육인증기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창출이 필요하다. 인증을 받은 학과의 졸업생은 취업이나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의 취득에서 그렇지 않은 학과보다 우대를 받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졸업생의 질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강력한 고용주체들의 등장이 필요하다. 최근에 이루어진 한국공학 교육인증원의 성공의 배후에는 공대졸업생의 질적 관리를 갈망하는 대기업의 요구와 수요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수요 주체의 등장이 상담계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담사나 상담교육의 질적 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의 효과에 대한 연구, 상담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새로운 상담방법, 상담기술, 상담이론 등의 개발과 그것들의 효과검증도 필요하다. 상담의 효과를 확인할 때 수요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상담 수요자들의 연대를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담사를 고용하는 기업, 학교, 군대, 복지관 등의 상호연대를 통한 세력화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상담의 질과 상담자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상담교육인증의 방향과 과제, 상담학계의 입장 II

김택호(조선대 상담심리학과,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검정위원장)

본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함에 있어 본 토론 원고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검정위원장으로써 학회차원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의견임을 말씀드린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상담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담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의 수와 이들을 양성하려는 교육기관과 양성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상담자양성교육체제를 구축하고자 시도한 이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그 동안 상담자 양성은 각 대학의 대학원과정(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을 통해 양성되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이들이 대부분 전문학회(예,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와의 연계를 통해 상담전문가 자격을 취득해 왔다. 따라서 각 학회에서는 상담전문가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격검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회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 높은 상담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학회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각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의 학부과정에 상담심리학과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지원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상담심리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질 높은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대학(학부과정, 대학원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상담자교육양성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전문학회의 노력이 함께 더해진다면 시너지 효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각 대학의 상담자교육양성체제는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운영되어 온 게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을 각 대학의 교수들이 알기에 전문학회를 통해 통일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상담전문가의 자질을 관리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의 상담자교육양성체제를 체계화함으로써 질 높은 상담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가 우선, 학부과정의 상담자교육양성체제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학부상담교육 인증의 기준과 절차를 구안하려는 시도에 동감한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학부과정의 상담교육 인증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고 그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향후 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과정 상담교육의 궁극적 인재양성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즉, 전문가양성인가 아니면 준전문가의 양성인가 아니면 기초소양인의 양성인가? 현재 상담심리분야의 준전문가는 대학원과정을 마치고 관련학회에서 2급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그 이후 1급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부과정의 상담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마친 사람의 전문성을 어느 수준에서 인정되도록 할 것인가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관

런자 또는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심사영역에서 상담실무 및 실습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는 체계(학교내·외의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상담자들이 학교내의 정규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실무 및 실습경험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졸업을 하다보니 이러한 부족한 실무경험을 기타 관련 전문학회의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동분서주하며 비체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상담실습경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학부과정 상담교육 인증심사제도에 참여한 기관과 참여하지 않은 기관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즉, 인증심사제도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관이 누릴 수 있는 잇점 또는 혜택이 무엇일 수 있는가가 향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다 많은 대학이 이 인증제도에 참여해야 이 제도의 효과성이 배가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각 전문학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자격증은 대학원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증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전문학회와의 연계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국가자격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을 무시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 번거로운 인증심사를 통해 획득한 인증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증대학의 졸업자들이 취업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증은 인증이고 취업과는 별 상관이 없다면 이 제도의 효과성은 경감할 것이다. 의학이나 간호학 분야처럼 인증을 받은 대학의 학생들이 국가자격고시에서 거의 다 합격을 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로서 인정받으며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이 제도의 효과성은 적을 것이며, 각 대학에서 학과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취업률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상담심리학과가 향후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다섯째, 학부과정과 함께 향후 대학원과정에서의 상담교육인증제도가 연계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그 효과성이 배가될 것으로 생각한다. 학부과정이 생긴만큼 대학원과정과의 차별화와 연속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인증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기존의 다양한 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자격증제도(국가 및 민간)와의 관계성을 보다 체계화하고 연계성이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담교육인증의 방향과 과제, 상담학계의 입장 Ⅲ

- 학부 상담교육 인증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한계 -

김지현(홍익대학교 교육학과)

한국의 초기 상담 교육자들 중 다수는 미국에서 수학하였으며, 따라서 한국의 상담 교육 역시 미국과 유사하게 대학원에서의 학위 과정으로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 경우, 상담 교수와 학내 상담 기관 등의 충분한 교육적 자원을 갖추고 대학원의 상담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다수의 대학에서 빈약한 교육 자원만으로 대학원 상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한국 대학의 다수가 학부의 학과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학원 전공 프로그램의 독립성과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상담 교육이 학부 중심 운영의 대학 환경에서 충분한 교육 자원을 갖추고 충실한 상담 교육을 실천하려면, 대학원 상담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학부에 상담교육을 위한 학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상담 교육 프로그램이 다수의 교수자, 충분한 교육 설비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인식을 기반으로 학부의 상담 관련 학과가 설치되기도 하였지만, 일부 상담 관련 학과는 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편승하여 설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경우 학부 상담 관련 학과는 교육 자원의 확보에서 대학원의 상담 전공 프로그램이 경험한 어려움을 다시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학부 상담 교육 인증 체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필요하다.

이미 학부 교육의 일부 영역에서는 교육 인증 체제가 도입되어 있다. 의학, 경영학, 공학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 영역들은 다양한 조직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며, 관련 학과들은 한국의 주요 대학 대부분에 설치되었다. 사회적으로 이 영역의 교육에 대한 인증이 필요함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수의 대학들은 이 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 영역의 대학 졸업생들은 자격 취득이나 취업 시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을 것을 요구받는다.

상담의 경우, 앞에서 예를 든 영역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의학, 공학 등과는 달리 아직 상담 영역은 제대로 조직화되지도 않았고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소위 주요 대학에서 상담 관련 학부 학과가 설치된 예도 많지 않다. 아직 학부의 상담 관련 학과가 충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 상담 교육 인증 체제를 선불리 도입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학부 상담 교육 인증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 공학 교육 인증의 경우 인증 체제가 만들어진 후 얼마간은 많은 기업이 관련 인력을 채용할 때 채용될 인력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학 교육 인증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고려하는 기업이 감소하고 있다. 학부 상담 교육 인증체제가 마련되면 학부 상담 관련 학과를 설치한 각 대학은 물론 많은 시

간, 노력, 인력의 투입하여 인증을 준비할 것이다. 따라서 상담 영역에서 배출되는 새로운 인력이 그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학부 상담 교육 인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요구된다. 학부 상담 교육 인증이 사회적으로 활용되려면 대학원 상담 교육 중심의 기존 상담계에서 학부 상담 교육 인증을 수용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더불어 필요할 것이다.

학부 상담 교육 인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부 상담 교육 인증 체제는 비교적 신생의 학부 상담 관련 학과가 스스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우선 학부 상담 관련 학과 졸업생의 능력과 자격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한 노력이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공학 전공 학부 졸업생이 채용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들이 대학원의 석사 교육이 더 필요한 인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담학계에서는 학부 졸업생이 대학원에서의 훈련이 더 요구 되지 않는 인력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다. 그것이 기득 상담학계의 편견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학부 상담 교육 과정을 더욱 충실히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부 상담 교육 인증 체제는 학부 상담 교육 과정을 충실히 세우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학부 상담 교육 인증과 상담 관련 자격 간의 관계에 대한 숙고도 요구된다. 한국에서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학생들에게 졸업과 함께 자격을 부여한다. 의학과 의 학생들은 졸업과 함께 국가 공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의사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상담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가 각 주의 상담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상담자로서의 면허를 취득한다. 상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하여 한국은 국가가 엄격하게 개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부 상담 교육 인증과 상담 관련 자격 간의 관계는 학부 상담 교육 인증 체제를 세우는 조직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부 상담 교육 인증이 한국 사회에 배출되는 상담자의 질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인증 체제와 자격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요구된다.

한국에서 학부 상담 교육 인증과 상담 자격 간 관계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민간 영역의 상담학회, 상담심리학회 등 이런 저런 상담 단체 및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국가기관들이 발급하는 자격일 것이다. 이 자격들 중 일부는 민간과 학교 등의 공적 영역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다. 이 자격들 중 전문상담교사 2급 등을 제외하면 대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들이 취득할 수 있다. 학부 상담 교육 인증 체제를 세우려는 조직에서 설정하고 있는 상담 학부 졸업생의 자격이 기존의 상담 자격들과 어떻게 양립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족 한 줄을 덧붙이고자 한다. 학부 상담 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이 상담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드는 이런 저런 이유 중 하나는 과연 이들이 충분한 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하였는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대학원 과정의 상담 교육에서는 소수의 학생들이 학기 당 비교적 적은 수의 학과목을 수강하면서, 혹은 과정 수료 후 인턴 등의 통로를 통해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집중적 훈련을 제공 받게 된다. 일부 상담 프로그램 대학원생들의 경우 이 훈련을 받기 위해 소

위 열정 폐이의 희생자고 되고 있기도 하고 과도한 수퍼비전 비용에 고통 받기도 한다.

학부 상담 교육의 경우 대학원의 경우보다 한 학과 당 더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실습 과정을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 또한 학기 당 다수의 학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므로 장기간의 집중적 훈련에 참여하기 어렵다. 그렇다 하여도 직접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다루는 상담 영역의 특성상, 이들에게 충분한 상담 실무 실습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기대가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은 상담 실습 및 수퍼비전을 받기 위해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학부 상담 교육 인증 체제 구축이 이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발표3

상담기관의 입장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Wee특임센터장

소수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연수부장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좌장)

상담교육인증의 방향과 과제, 상담기관의 입장 I

- 상담교육인증체제와 Wee 프로젝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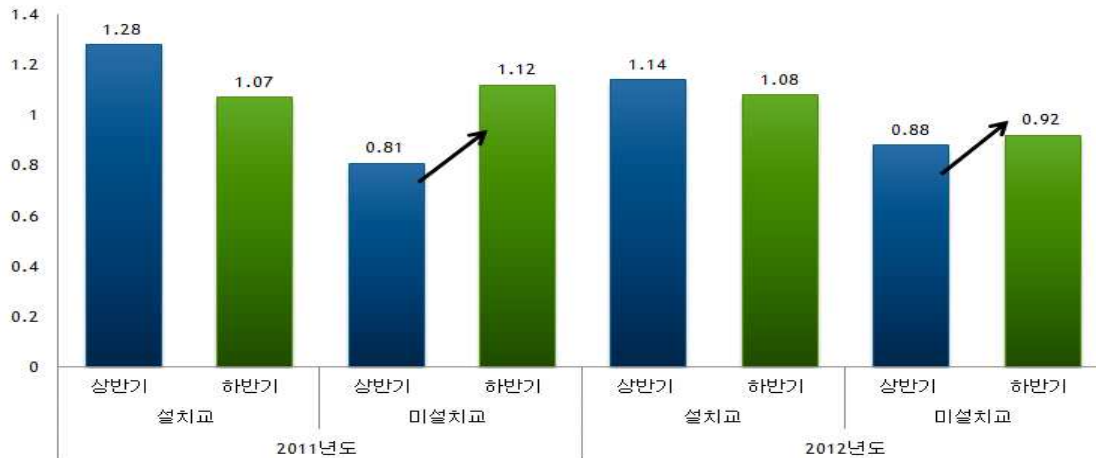
전인식(한국교육개발원 Wee연구특임)

I. 상담교육인증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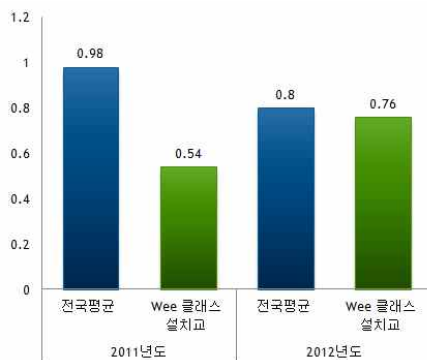
학생상담지원을 하는 ‘Wee 프로젝트’가 출범 8년째로 접어들었다. 2008년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및 지역사회가 다중의 안정망을 구축함으로써 학교부적응, 폭력 등으로 부터 인력손실을 예방하고,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마련된 학교상담 정책 사업이다. Wee 프로젝트 사업은 1차 안전망으로 단위학교 내 Wee 클래스, 2차 안전망으로 교육지원청 내 Wee 센터, 그리고 3차 안전망으로 시·도교육청 관할의 Wee 스쿨이 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Wee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여기서 확대라고 함은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등의 기관 확대, 기관 확대에 따른 인력 배치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상담, 집단상담, 관련 교육 등 Wee 프로젝트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 수의 확대를 말한다. 이렇게 확대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상담을 통한 치유 효과가 나타나면서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Wee 프로젝트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학생만이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처음에는 낯설게 보이던 “Wee”라는 용어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고, Wee 프로젝트는 상담에 대한 인식을 학생단계에서부터 재인식시키는 효과가 있다.

Wee 프로젝트의 성과분석(김소아, 2014)에서 Wee 클래스를 설치한 학교와 설치하지 않은 학교를 무작위 선정하여 무단결석률, 학업중단율을 조사하여 비교했는데, Wee 클래스의 효과가 실제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Wee 클래스 미설치교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무단결석률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Wee 클래스 설치교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무단결석률이 감소하고 있었다. 학업중단율에 있어서도 전국 평균 대비 Wee 클래스가 설치된 학교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0] Wee 클래스 설치교 vs 미설치교 무단결석률 비교



[그림 21] 중학교 학업중단을



[그림 22] 고등학교 학업중단을

Wee 프로젝트는 학생상담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이다. 학생상담이란 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종사자의 명칭도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Wee 프로젝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단기간에 충원하면서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주변의 우려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제시한 채용 권고안은 ①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③ 전문상담사((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증 소지자 ④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⑤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이었다. 이에 관해 많은 자격증 발급기관에서는 ③ 항목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 (사)한국상담학회와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자격증만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과 현장에서는 각종 치료사 자격증 등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 등도 있고, 학교폭력이나 사이버폭력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자격증과 ‘아동폭력예방상담사’ 자격증 등이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발급되기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폭력 전문상담사’ 채용 공고가 나가자, 그 응모 자격으로 동일한 민간자격인 ③까지만 인정하느냐는 이의 제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자격취득의 기준을 검토한 결과 ③을 인정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부분은 이

해하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납득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다.

2013년 감사원은 2012년 Wee 클래스 등에 배치된 전문상담사 중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담인력이 전체의 20%인 940명으로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학과 전공자를 자격요건 충족으로 부적합 비율을 일부 낮췄다. 이와 관련해서 상담교육인증체제가 도입된다면 교육부의 해석이 더 타당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표 1> 2012년도 전문상담사 자격 현황

(단위: 명, %)

채용 인원 (비율)	채용 요건 적합					채용 요건 부적합			
	소계	상담교사 자격증	3개 상담관련 자격 ¹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교원 자격증	소계	관련학과 전공자	기타 민간상담 자격증	기타
4,689 (100.0)	3,749 (80.0)	644 (13.7)	461 (9.8)	2,078 (44.3)	566 (12.2)	940 (20.0)	76 (1.5)	566 (12.2)	298 (6.3)

1: 3개 상담관련 자격은 2012년도에 교육부가 인정한 발급기관에서 상담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임

<표 2> 2013년도 전문상담사 자격 현황

(단위: 명, %)

채용 인원 (비율)	채용 요건 적합						채용 요건 부적합		
	소계	상담교사 자격증	3개 상담관련 자격 ¹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기타 민간 상담자격	관련 학과 전공자	소계	교원 자격증	기타 ²
3,342 (100.0)	2,949 (88.2)	433 (13.0)	462 (13.8)	1,488 (44.5)	411 (12.3)	155 (4.6)	393 (11.8)	323 (9.7)	70 (2.1)

1: 3개 상담관련 자격은 2012년도에 교육부가 인정한 발급기관에서 상담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임

2: 2012년도 채용요건을 기준으로 할 때 부적합한 자는 636명(19.0%)임

Wee 프로젝트가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각 단계에 적절하게 기관을 구축하고, 상담·치유 서비스를 진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고, 그 전문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가자격을 소지한 인력만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인력 수급에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담교육인증체제를 통해 관련학과 졸업성의 전문성 담보가 가능하다면 학교상담의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상담사를 석사 수준의 학력과 일정 수련을 거쳐야만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급여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급여 및 근로조건을 볼 때, 학교상담사는 학부졸업생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역량이 확보된 인력이 대학에서 배출된다면, 직무교육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관리해나가는 일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과제가 될 것이다.

상담교육인증의 방향과 과제, 상담기관의 입장 II

소수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0년대 들어 상담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더불어 상담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양질의 상담은 무엇보다 상담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들의 전문성은 일정한 기준을 갖춘 체계적인 상담자 교육을 거쳐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상담자를 양성하는 것이 상담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처럼 상담자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상담자에게 내담자를 보호하는 윤리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의 원고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나라 상담자 교육 내용은 학부, 일반대학원, 상담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이어져 왔다. 상담 초기 상담자 양성은 심리학과 또는 교육학과 대학원의 세부 전공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왔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부에 상담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대학 내 두 개의 과를 융합하여 상담관련 학과를 설치하거나 특수대학원이나 사이버대학 등을 중심으로 상담 세부 전공과정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상담자 교육 과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이지 않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상담자 전문성을 향상시켜 상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상담교육인증체제’ 구축을 제시한 연구가 무척 고무적으로 보인다.

상담기관의 입장에서 ‘상담교육인증체제’에 관한 긍정적인 시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상담교육인증체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것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상담자를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관에서 상담자를 선발할 경우 관련 학과 졸업 여부,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상담 전문성을 위해 수퍼비전 등 상담 관련 훈련 여부, 의사소통 능력 또는 문서 작성과 같은 행정 업무 가능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상담교육인증체제’는 상담자로서 적합한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해주는 기준이 되므로 채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은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분야’와 ‘상담의 이론과 실제, 면접원리, 발달이론’ 등과 같은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인 ‘상담관련분야’를 전공으로 한 자이다. 이에 대해 학과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는 상담관련학과임에도 번거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관련학과 내에서도 상담관련 교과목에 대한 수강을 하지 않고도 학과 졸업만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 따라서 ‘상담교육인증체제’를 통해 검증된 상담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격증 취득자의 기본 상담관련 능력을 간단히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 또는 핵심 역량을 표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담관련 학과 내에서도 교육 과정이 다양하여 해당 학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상담관련 역량을 갖추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상담교육인증체제’는 최소한의 상담관련 교과뿐 아니라 실습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학부 졸업 상담자들의 표준화된 역량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인증체제는 최근 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2014년 개발된 NCS 분류체계 중 ‘청소년상담복지’ 직무의 능력 단위를 접수면접, 심리평가, 개인상담, 청소년 자립지원, 지역사회안전망 운영 등 14개로 규정하고, 각각의 능력단위요소를 추출하여 그에 따른 수행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상담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상담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담교육인증체제’의 학습 목표와 교과목 운영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증체제는 청소년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능력을 표준화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인증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과연 표준화가 최선인가? 하는 점이다. 발표자도 언급했듯이 평가나 표준화량 최소한 갖추어야 할 근거를 제시해주기도 하지만 학교 및 학과의 자율성과 독특성을 제한시키는 점도 있다. 따라서 이 둘의 균형을 얼마나 잘 잡으면서 체제를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담자 양성은 상담학과뿐 아니라 심리학과와 교육학과 등에서도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교육인증체제가 상담학과 중심으로 구축되어 시행된다면 채용 시 다른 학과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관련 학과를 어떻게 아울러 진정한 상담교육인증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부 졸업생들에게 전문성을 지금까지 상담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상담관련 석사학위자들이다. 이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다루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부 졸업생에게 상담의 전문성을 요구하기보다 기초적인 상담이론 습득 및 상담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가 이들이 습득해야 할 핵심역량이다. 또한 기관에서는 채용된 상담자들이 당장 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므로

학과에서 이에 대한 실무 능력을 함양시킬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부와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인증체제 구축을 위한 선행 작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상담교육 관련 기관 및 학회 등과 충분한 논의 후 인증체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만일 일부 학교와 학과만 참여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인증체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결국 상담자 전문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인증체제’를 통한 상담자 교육의 체계화와 표준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교육인증의 방향과 과제, 상담기관의 입장 III

- 상담기관의 상담사 자격을 중심으로 -

김동일(서울대 교수/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회장)

여는 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와 다양한 수준의 상담사의 양성, 여러 가지 다른 영역의 상담 서비스의 출현으로 인하여 상담의 대중화와 질적 제고가 동시에 요청되고 있다. 기존 전문상담자 양성과정은 일반대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김창대, 이숙영, 2002), 점차 학부에 상담학과가 설치되어 대중화에 촉매가 되었으며, 이에 상담자 양성과 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담교육인증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실제적 운영이 현실화되고 있다. 본 토론자가 과거 10여년 동안 상담기관의 국가수준 상담자 자격기준에 대한 연구들과 상담학회의 상담자격 인증 기획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상담교육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였던 바, 본 세미나의 과제는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교육인증체제는 전문교육체제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교육부에 의한 교사양성과정 인증) 뿐만 아니라 민간(공학교육인증원에 의한 공학교육인증제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체제가 제안되고 자리잡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육인증에 대한 이해관련집단의 절박하고 강력한 요구에 대한 양성기관의 대응이다. 상담교육인증제도가 시작되고 우리 사회에 제대로 자리잡기 위하여 국가적, 시장적 요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반응이 그 첫 걸음이다. 단순히 양성학과가 늘어났다거나 대중화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의 기능적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담기관의 “요구”는 상담교육양성에서 배출된 인력의 자격검정과 인력 수급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도전이자 기반이 될 수 있다. 만일 절박한 상담기관 현장의 요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저 “짜사랑”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학부수준의 상담자교육인증에 있어 상담기관의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쟁점을 몇 가지 제시하여 이후의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본론

1. 청소년상담기관의 학부 상담자 교육에 대한 기대와 도전

청소년상담사 중에서 학부 상담자 교육에 대한 기대는 자격증(특히 3급)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능한 실행 인적자원으로서의 상담사이며, 주요 역할은 전문적인 개입과 행정 실무로 볼 수 있다.

<표1> 상담사의 주요역할과 세부내용

급	주요 역할	세부내용
1급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 (지도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한 개입 ▪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2급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 (기간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3급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 (실행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 ▪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출처 : http://www.youthcounselor.or.kr/new/sub01_3.html>

이러한 학부 수준의 상담사(3급 준립)에 대한 상담기관(종사자) 찬/반 의견에서 드러나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서영석, 김동일, 2012)

찬성:

- 4년제 또는 전문대 상담관련학과 학부졸업생에게 자격취득의 기회를 주어야하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사 3급을 유지해야한다.
- 청소년상담사는 타 직종과는 달리 상담관련 행정, 보조 등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 업무들을 담당하는 청소년상담사 3급을 유지해야한다.
- 다른 유사국가자격제도(예: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청소년상담사 3급을 유지해야한다.

- 지방이나 도서지역에는 상담전문 인력이 부족한 곳이 많다. 지방에서는 청소년상담사 3급도 유효성이 높다.

반대:

- 청소년상담사 3급은 상담의 전문성 결여로 전문상담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우려가 있으며 너무 기초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 2급과 3급의 자격검정 과목이 중복되므로 3급은 폐지되어야 한다.

학부수준의 상담자 양성에 대한 필요성은 현실적 수요와 유사 제도(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문상담자로서의 전문성 결여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학부 수준의 여타 유사 자격자와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 전문성 결여는 교육인증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2. 상담기관의 상담자 자격 기준에서의 학부 상담관련 전공 학과의 포함과 배제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을 통하여 시사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교육 인증에서 중요한 것은 “상담학과”의 포함과 배제 준거이다. 현재 개설된 상담관련 학과의 명칭은 ‘상담복지학과’, ‘심리상담치료학과’, ‘심리치료학과’,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전공에서 다루는 것을 전부 투명하게 알 수는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중립적 수준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인증기관이 다룰 수 있도록합당한 판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인증과정에서 특히 상담전공에게 요구되는 실무능력의 검정 문제이다. 상담전공 학과의 교육인증에서 서류평가 등으로 전체적으로 강화되는 실무능력과 실무능력 양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등급	응시자격
3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 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 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 부령이 정하는 자

셋째, 학부 수준의 다양한 전공학과의 존재와 실무능력 검정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 학부 졸업자의 역량에 대한 ‘건전한 의심’과 마주해야 한다. 특히 이들과 견주어서 보아도 손색없는 ‘비상담관련분야’ 전공자 중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상담능력을 갖춘 인력에 대한 사회적, 시장적 요청이 더욱 높다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

3. 현장(기관)의 절박한 요청

상담교육인증을 시작하고자 할 때 다시 한번 진지하고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학교육인증과 같이) 시장에서의 요청이 정녕 절박한가?

달는 글

양성기관의 외부에서 바라보는 교육인증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상담교육과정의 충실성(integrity)과 현장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이다. 이러한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앞으로 오늘의 논의를 포함하여 상담교육인증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생산적 논의와 발전적 진전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창대, 이숙영(2002). 상담전공대학원 교육과정 표준화연구. *교육학연구*, 40(2), 231-250.
- 서영석, 김동일(2012).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2012-58, 서울: 여성가족부.
- Witt, J. & Elliott, S. (1985). Acceptability of classroom intervention strategies. In T. Kratochwill (Ed.), *Advances in school psychology* (Vol 4, pp. 251-288). Hillsdale, NJ: Erlbaum.

발표4

교육행정기관의 입장

김계현 서울대학교 교수

서민원 한국대학평가원장

황진태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회 사무국장

김장희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좌장)

상담교육인증의 방향과 과제, 교육행정기관의 입장 I

김계현(서울대학교)

발표문: 상담교육인증체계 구축방안 (김인규, 전주대)

본 연구발표는 발표 자료의 부록을 봄으로써 그 전체의 구조와 내부의 상세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부록1은 “상담교육 인증원 정관”으로서 누구에게 인증을 받을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록2는 “인증 기준 및 평가표”로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수정하면 충분할 정도로 본 연구발표는 포괄성, 명료성, 구체성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보완할 사항

1. 평가 실시를 위임받은 주체

- 용어 정리 필요 (인증평가위원회, 인증평가단 등)
- 위원의 수 및 위원 선발에 관한 사항
- 인증평가단(혹은 평가위원회)의 임무, 권한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사항

2. 인증 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최초의 인증과 제2차 인증을 미리 규정할 필요 (이미 인증 절차를 정착한 경우와는 다를 것임) 예: 2016년 최초 인증, 2019년 제2차 인증, 그 이후 매 5년 심사.
- 수시 심사 가능 여부
- 인증 실패 시 후속 보완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가장 민감한 부분이 비교적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운영할 때 혼선 예상) 최초 인증에서 실패한 학교는 언제, 어떻게 재심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 필요할 듯.
- 인증 받은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어떤 이득이나 어드밴티지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그런 이득과 어드밴티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떤 장치를 준비해야 할지? (성문화할수 있는 사항 혹은 성문화할 수 없는 암묵적 사항)

3. 인증 기준 및 평가 기준 중에서

- 각 평가요목에 대한 정량 기준을 제시한 점은 잘 된 점이라고 생각함.
- 다만, 정량화 된 점수를 단순 합산할 것인지? 아니면, 핵심 사항 몇 개가 있어서 핵심요목의 점수가 얼마 이하면 “과락”으로 판정되게 할지? 즉, 기준은 제시되었지만 그 기준의 정량 점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 교육시설 (예: 실습장(가관), 실습시설과 설비, 지도감독자) 등에 관한 구체 사항
- 실습 방법에 대한 구체화 : 시뮬레이션 실습 및 현장(실제) 실습

- 지도감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4. 교육행정기관 입장

- 평가받고, 인증받는 입장: 평가 요목, 기준, 채점 등에 대한 명료성, 구체성 필요
- 평가하는 기관과 평가받는 기관이 상생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존재
- 시뮬레이션 평가 및 인증을 여러 차례 해보아야 할 것임

상담교육인증의 방향과 과제, 교육행정기관의 입장 II

- 상담인증체제구축 관련 쟁점과 과제 -

서민원(한국대학평가원장)

I. 상담교육인증의 필요성

- 상담전공 분야의 자율적인 질관리 체제 문제

현재 상담전공 분야는 다양한 학위과정과 양성과정이 난립하고 있어 한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질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음. 이는 국민의 정신건강과 심리, 인간관계의 성장과 행복을 담당하는 전문분야의 양성체제로서 적합하지 않음.

- 상담전공 분야의 정체성과 위상 구축 문제

현재 상담전공 분야는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신학, 정신의학, 청소년학, 가정학 등 다양한 학분분야가 관계하고 있어 상담 고유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상담자 각자는 각기 모학문의 정체성과 위상에 의해 상담을 수행하고 있음. 상담이 독자적인 정체성과 사회적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학문 및 실천영역으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함.

- 상담전공 관련 분야의 평가인증체제 구축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제

현재 상담은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전문적 직업이라기 보다는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준전문 직업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의사나 간호사와 같이 오직 그 일을 해야 하는 전문직업이 아니라 목사, 교사, 사회복지사의 여러 업무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거쳐야 할 만큼 전문적인 지식, 기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II. 상담교육인증체제구축의 방법

- 상담전공 관련 협의체의 평가인증 주체 문제

상담교육인증을 실시할 경우 누가 인증의 주체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임. 상담전공 관련 협의체가 참여해야 하지만 상담현장 관련 단체의 참여도 매우 중요함. 인증주체의 법적 지위도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임. 정부 부처의 인정을 받은 단체는 법적 위상을 갖을 수 있지만 그만큼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평가인증의 자율성이 제한받을 수 있음.

- 상담전공 관련 협의체와 학회의 관계성 및 협력 문제

현재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는 학부 수준의 상담전공 협의체로서 대학원 수준의 상담

전공 협의체와 협조적 관계를 구축하여 이 상담교육인증체제를 만들어가야 함. 기존의 전문학회가 대부분 대학원 수준부터 상담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상담전공 관련 분야의 정부 부처 주체 문제

현재 다양한 정부부처가 상담에 관여하고 있어 상담에 대한 주무부처를 정하기 곤란함. 그러나 상담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확실해야함.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등이 주요 부처일 것이나 현재와 같이 부처별로 상담업무가 분산된 상황에서는 어디도 주무부처로 나서지 않거나, 어디가 주무부처로 자처할 때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 상담전공 관련 분야의 위상 정립을 위한 법과 제도 구축 문제

상담교육인증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 상담법이 제정되거나 현행 상담 관련 법이 대폭 수정되어서 상담의 독자적 영역이 법과 제도로 보장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회, 정부부처, 언론, 고등교육 관련 기관에 대한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섭외 과정이 필요함.

- 상담전공 관련 분야의 평가인증방법, 기준, 결과활용 문제

상담전공 관련 분야에는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가족상담, 진로상담, 예술치료상담 등 다양한 영역이 있음.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평가인증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각 영역별 평가인증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또한 평가결과를 대학, 산업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함.

- 상담전공분야의 정규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국가자격 및 학회인정 자격(licence 등) 범위

상담전공분야의 정규 학위 과정을 이수한 것이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등의 국가자격과 여러 민간자격 취득에서 어떻게 인정받도록 할 것인지 지침이 필요함. 이는 상담자로서의 자격을 과연 상담 전공자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국민으로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먼저 상담계에서 나오고 이를 국가정책화 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청소년상담사는 학과졸업자 또는 과목 이수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로 전공을 확대하여 제시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담전공자만이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Ⅲ.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상담전공 관련 분야와 인접학문과의 협력 및 갈등해소 문제

상담전공은 정신의학, 사회복지, 교육 등의 인접학문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활동영역이 중첩되고 있음. 현재는 서로를 일정부분 인정하며 다소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 타 학문분야가 상담영역을 자신의 하위영역으로 삼고 있음. 상담교육인증체제를 통해 상담분야가 독립적 학문영역으로 나서게 될 때 인접 학문분야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임. 이에 대한 대처와 협력관계 구축을 고민해야 함.

- 상담전공 분야의 취업 및 진로 문제

상담교육 인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담전공 분야의 취업 및 진로문제와 연동되어야 함. 현재 상담전공자는 많으나 그에 걸맞는 상담 현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급의 불균형 상태임. 인증 프로그램 졸업자에 대한 이익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인정수준의 상담교육 프로그램 이수 표준 및 국제적 통용성

한국에서 상담교육인증체제가 구축 운영될 경우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거나 통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가급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상담교육인증의 방향과 과제, 교육행정기관의 입장 III

황진태(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

발제문을 통해 나타난 상담교육인증체제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망은 현실을 반영한 솔직한 연구 결과라고 생각한다. 상담교육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상담계의 합의를 우선시한 것, 상담교육인증 학과 졸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보, 상담교육인증을 위한 법적, 행정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시각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상담교육인증을 지원하는 법적, 행정적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상담의 욕구를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는 상담교육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시킬 정책 방향과 정책에 대한 가치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유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의 인구구조와 경제적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소득 양극화와 고령화 추세는 단기간에 해소될 사안이 아니다. 상담에 대한 수요와 지출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끌어내려는 정치적 행위와 과정이 수반되어야 법적, 행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용이하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정리하였다.

1. 공론화의 필요성

발제문에서는 상담교육인증체제가 잘 구축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담 전문가 및 수련생들에게 본 인증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그 기준에 대한 합의와 인증에 참여 의지를 강화하는 등 과제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실상 상담교과목 학습부터 시작하는 가치사슬을 추적하면 결국 상담사 자격 취득 후 활동으로 귀결되는 데, 실제 우리나라 상담관련 자격 취득 기관(학교 포함)의 난립으로 전문상담사에 대한 자질 문제가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그동안 학회는 상담사 자격 발급이후에도 보수교육을 통해 상담사의 지식습득에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여타 기관들은 자격 발급이후에 관리를 하지 않아 현장에서 유사한 자격 취득자에 대해 자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상담가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이고,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가치사슬의 중간단계에서 점검하기 보다는 최초 단계인 학교 학습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체계적인 교과목의 선정과 교수법을 확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국민들이 상담계를 바라보며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교수, 학생, 전문가, 상담가들

이 공론화를 통해 공유를 해야 상담계가 자멸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실태조사의 필요성

상담교육인증체계 구축의 최종적인 목표는 법적 행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관련 담당자들을 접촉할 때 항상 요구를 받는 것이 '자료'이다. 목표에 대한 당위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해야 상대방과 인식을 공유할 수 있고 목적하는바 성취가 가능하다. '자료'는 다름 아닌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확보가 가능하다.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 상담, 상담가 현황, 학습경로 추적, 직업인으로서 활동 현황 등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문서화하고, 가능하다면 DB구축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의 결과물은 결국 발제문의 제1장 상담교육인증의 필요성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것이고, 법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관련자들과 인식을 공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태조사의 방법은 협의회나 학회의 자체 비용을 들여 실시할 수도 있지만 연구결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의뢰를 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법, 또는 입법부의 연구파트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3. 법적 행정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제언

실태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DB가 형성되면 상담교육인증을 지원하는 법적, 행정적 시스템 구축을 시도할 수 있다.

법률적 행정적 시스템 구축은 결국 상담교육인증체제의 제도화(制度化)를 말하는데 결국 개인 및 조직의 행동에 일정한 양식, 규칙을 형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학과의 자율성을 일정 정도 제한시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전문상담자 양성이 국가적 수준의 표준을 마련하고 일반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동의를 한다.

발제문에서 제시하는 세부과제 즉 (가칭)상담법의 제정, 상담사 국가자격 신설,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등은 서로 독립된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법률의 제정을 논의하다보면 행정적 근거로 NCS를 요구하기도 하고 NCS 활동을 하다보면 법률적 근거여부를 요구하기도 한다. 국가자격 추진과 법률제정 또한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는 상황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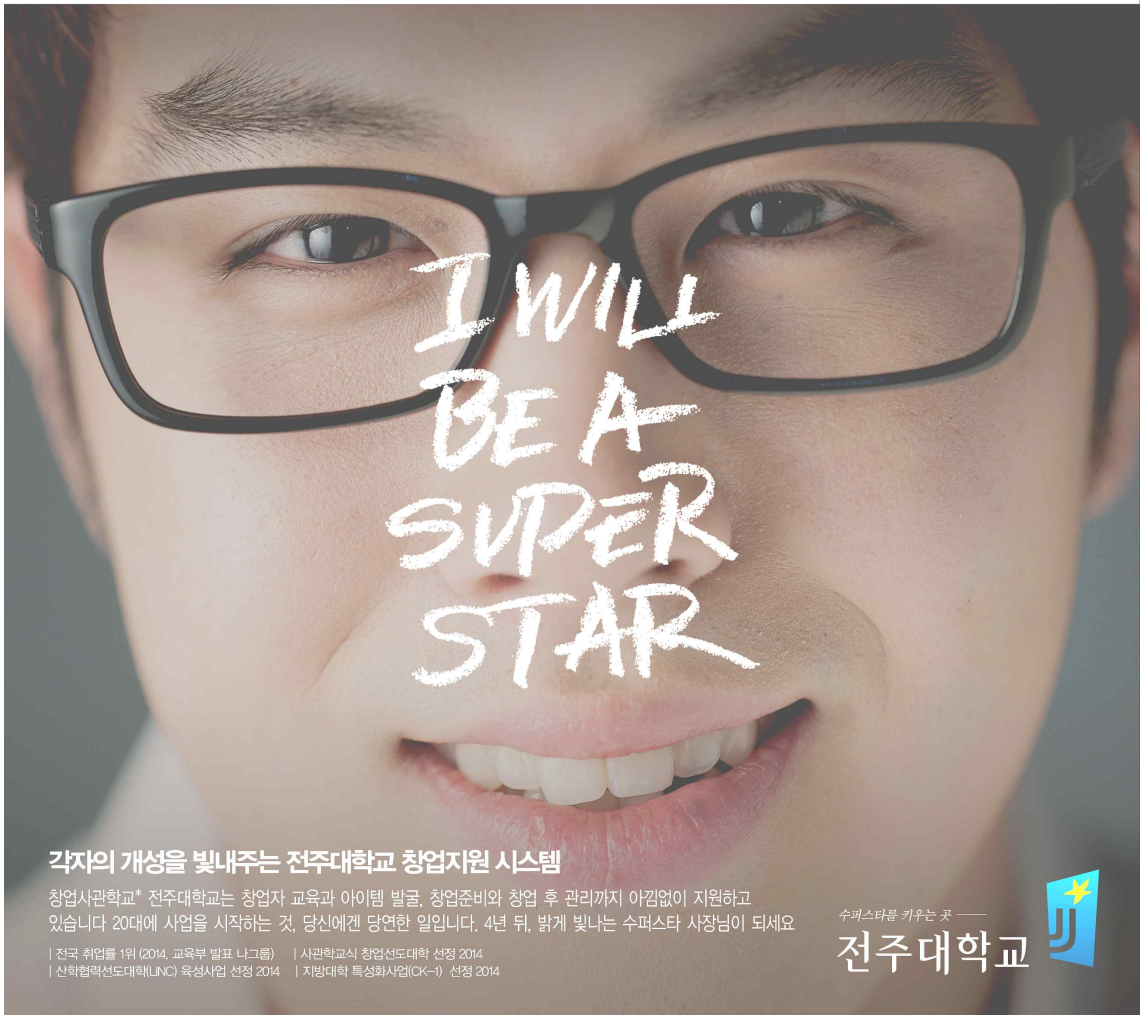
단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이 우선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재 일-학습 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불황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 등 선진 유럽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정책적인 수단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완전하게 정착되기는 어렵겠지만 이 제도를 통하여 과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교육비용 지출을 극복하고 인적자원 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확고하다.

일부 정책적 수단을 입안하려는 기관과 단체에서 국회를 통한 해결을 타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담교육인증체제 구축은 가급적 이를 지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담교육인증체제 구축이라는 과제는 정치적인 이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발전적인 개선을 모색하고자 하는 합목적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법률적 행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훗날 상담교육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주대학교>

졸업의 다른 말은 실업일까, 취업만이 대졸생의 목표여야 할까.
다른 생각과 다른 개성과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꼭
똑같은 수준에 갇혀있어야 할까. 비슷한 넥타이에 묶여있어야
훌륭한 사회인이 되는걸까. 시도때도없이 튀어나오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은 출퇴근길에 잊혀져야 할까. 내가 바꾸면 어떨까.
누군가 따라올 수 있도록 인정받으려 애쓰는 건 어떨까.


4년 뒤엔 슈퍼스타, 누군가를 꿈꾸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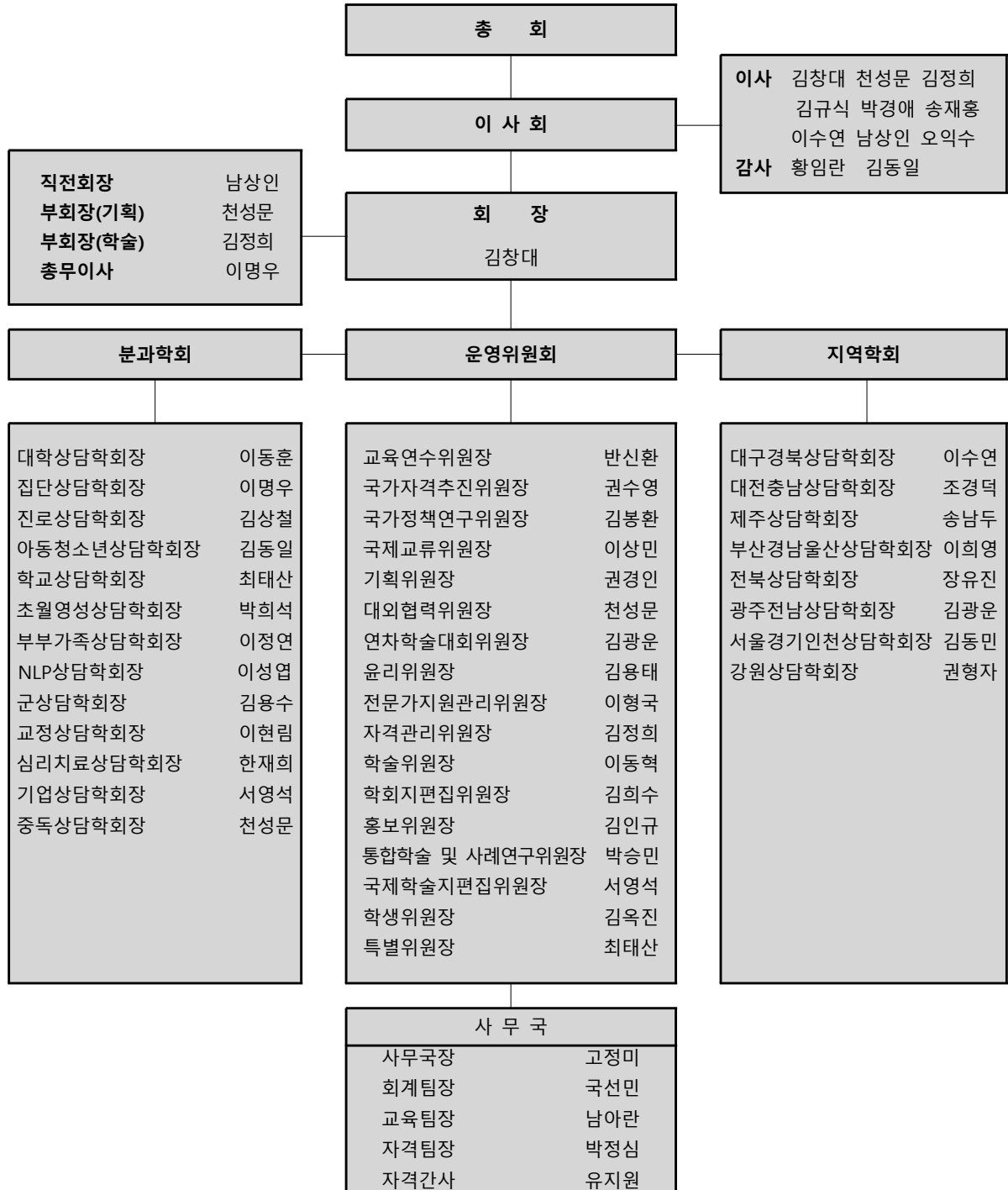
각자의 개성을 빛내주는 전주대학교 창업지원 시스템

창업사관학교* 전주대학교는 창업자 교육과 아이템 발굴, 창업준비와 창업 후 관리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대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 당신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4년 뒤, 밝게 빛나는 슈퍼스타 사장님이 되세요

전국 취업률 1위 (2014. 교육부 발표 나그름) |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선정 2014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2014 |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U-1) 선정 2014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 ———
전주대학교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조직도



< 상담·교육 시스템 안내자료 >

· 전주대학교 상담교육연구소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온라인 상담·교육 시스템은 상담 전문인력 및 내담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슈퍼바이전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온라인 운영 체제이다. 현재 Wee 프로젝트에서는 동일한 운영체제를 활용하여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등 상담전문학회의 슈퍼바이저들이 온라인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온라인 상담·교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1단계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온라인 상담·교육시스템 아이디 발급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관리자([정승영/kacdem@hanmail.net](mailto:kacdem@hanmail.net))에게 아이디 발급을 신청한다.

- 필요정보 : 성명, 메일주소, 참여 신분(교수·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강좌 중 택일)
- 교수·강사, 대학원생은 해당자격, 경력 등 기재
- 제출서류 : 아이디 발급 신청서(첨부양식), 온라인 상담교육 참여 동의서(첨부양식)
- 자격심의 후 관리자가 아이디 발급하여 메일로 발송(필요시 관리자가 참여 신분 조정)

2단계 온라인 상담·교육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온라인 상담·교육 시스템(asp.4nb.co.kr/kacd)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 필요 시설과 환경 : 인터넷 연결, 노트북 또는 웹캠 설치된 데스크 탑 컴퓨터, 조용한 주위환경, 헤드셋(권장)

3단계 로그인 및 비밀번호 재설정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온라인 상담·교육 시스템(asp.4nb.co.kr/kacd)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다.

- 아이디는 메일주소 앞부분으로 부여되며, 초기 비밀번호는 11111111로 일괄부여됨
- 접속 후 비밀번호 재설정 가능

4단계 온라인 상담교육 대상 및 일정 선정

- 온라인 상담교육 당사자간 약속을 정한다.
- 상담교육관련 제반사항(일정, 횟수, 비용 등)은 당사자간 결정한다.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온라인 상담·교육 참여 학과, 교수, 대학원생(수퍼비전 및 교육제공 가능자) 명단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홈페이지(kacd.kr) 자료실에서 열람 가능

5단계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온라인 상담·교육 방 개설 신청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관리자([정승영/kacdem@hanmail.net](mailto:kacdem@hanmail.net))에게 상담·교육 방 개설 신청서(첨부양식)를 제출한다.

- : 교수·강사, 대학원생(수퍼비전 및 교육 제공가능자)
- 필요정보 : 신청자 성명, 참여자 성명, 연락처, 방 구분(상담, 수퍼비전, 교육 중 택일), 날짜, 시간(1시간 단위 기준), 녹화 여부(녹화시 상담교육 녹화 동의서(첨부양식) 제출)
- 관리자가 일정 조정을 하여 방 개설 후 당사자에게 연락한다.

6단계 해당 일시에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온라인 상담·교육시스템 접속

약속된 일시에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온라인 상담·교육시스템(asp.4nb.co.kr/kacd)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다.

7단계 회의목록 선택

자신에게 해당하는 회의장을 선택한다.

회의방 입장

(1) 좌측 메뉴에서 [회의목록] 클릭

(2) [회의방 모드]에서 발표자 기관명과 발표자명이 기재된 [회의방] 버튼 클릭



8단계 상담·교육 실시

정해진 시간동안 상담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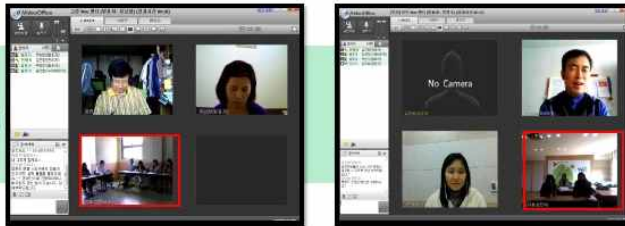
- 1시간 단위에서 최대 20분까지 초과 가능

다양한 참여방식에 따른 화면 구성

여러 참가자가
개인 컴퓨터를 통해
개별 참여 (최대 10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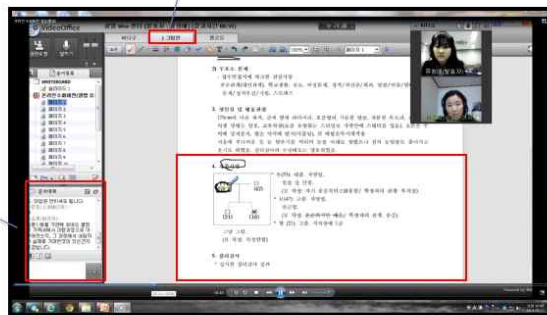
여러 참가자가
공동 카메라/마이크를 통해
집단 참여



사례자료 공유 : 그림판 모드

- 자료 공유
- 필기 기능

- 질문
- 의견 교환



9 시스템 사용료 납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소속 학과 내에서의 상담과 교육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 외의 상담 및 교육은 상담교육연구소 명의로 진행하며 5회 단위로 사용료를 납부한다. 1회(1시간) 사용료 5,000원.

- 우체국 402008-01-300321 상담학과협의회

□ 본 시스템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전주대학교 상담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1.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소개

각 대학에 개설된 상담학과의 발전과 상담학전공생들의 진로 개척을 위해 2006년에 조직되었습니다. 현재 각 대학 53개 학과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상담학과를 일반인 및 정부와 관련단체 등에 알리며 상담학전공생들의 이익보호와 진로분야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의 충실한 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상담사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데 일조하고자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를 통해 학부의 상담학과가 더욱 활성화되고 유능한 상담인력들이 양성되어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지원을 바랍니다.

2.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증 소개

본 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지도사는 본 협의회 소속 상담학과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며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본 자격증은 2014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 등록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4-2812 상담심리지도사 1급, 2급)

▶ 상담심리지도사 1급

- ① 본 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본 협회 규정에 따른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영역 중 2개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② 상담심리지도사 2급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상담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③ 상담 관련 학과에서 2년 혹은 3년을 이수하고 4년의 상담 실무 경력을 가진 자

▶ 상담심리지도사 2급

본 협의회 소속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의 상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본 협회 규정에 따른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4과목, 8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활동내용

① 학술대회 및 교수연수회 개최

- 가. 1회: 2006년 10월 27일 전주대학교
- 나. 2회: 2008년 9월 26일 침례신학대학교
- 다. 3회: 2009년 8월17일 건양대학교
- 라. 회원학교 연합학술대회 지원
- 마. 2013년 7월 1회 교수연수회
- 바. 2014년 1월 2회 교수연수회
- 사. 2014년 7월 3회 교수연수회
- 아. 2015년 1월 4회 교수연수회

② 상담심리사 자격증 발급

- 가. 1회 1급 261명, 2급 260명 (2008년 1월)
- 나. 2회 1급 466명, 2급 448명 (2009년 1월)
- 다. 3회 1급 554명, 2급 390명 (2010년 1월)
- 라. 4회 1급 761명, 2급 567명 (2011년 1월)
- 마. 5회 1급 748명, 2급 482명 (2012년 1월)
- 바. 6회 1급 760명, 2급 392명 (2013년 1월)
- 사. 7회 1급 770명, 2급 332명 (2014년 1월)
- 아. 8회 1급 1,122명, 2급 362명 (2015년 2월)

※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취득인원 누계

1급 5,442명 / 2급 3,233명 / 총 8,675명

③ 협조관계 구축

- 가. 한국학교상담학회 학술대회 참여자 지원
- 나. 각종 상담관련 학회행사협조

④ 홍보 및 권익보호 활동

- 가. 소식지 3회 제작 배포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학과현황>

상담교육인증체제구축 전문가 심포지움 자료집

발행인	김인규
발행처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편집인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사무국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544-4
발행일	2015년 4월
전화	063) 236-9870
팩스	063) 236-9870
홈페이지	http://kacd.kr
E-mail	kacdem@hanmail.net